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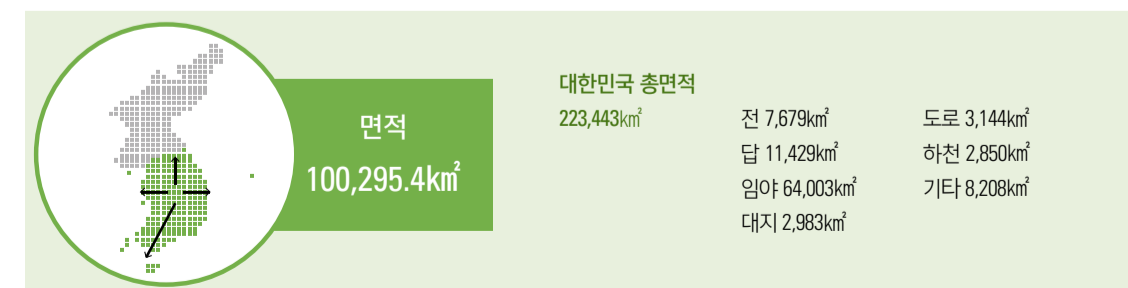
국토의 이용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서 총면적은 223,443km²(남한 100,295.4km²)이다. 2010년 기준 남한의 인구는 49,705,663명이며,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등록 기준 인구는 5,100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라는 우리의 정주 공간을 고려할 때 자연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산, 강, 해안 등 지형 요소뿐만 아니라, 강수량, 기온, 바람 등과 같은 기후 요소들은 이 땅의 식생을 결정하였고, 우리 조상은 이러한 환경 조건에 적응하며 정주 환경을 만들

어 왔다. 하지만, 20세기 근대적 산업화를 통해 형성된 21세기 우리 국토는 자연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사회의 발전은 점차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기반 시설과 같은 건조 환경을 구축하면서 이루어졌다. 산과 하천이 제약했던 지역 간 교통은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보다 원활하고 빨라졌으며, 국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댐 건설 및 간척 사업과 같은 여러 국토 개발 사업은 지리적인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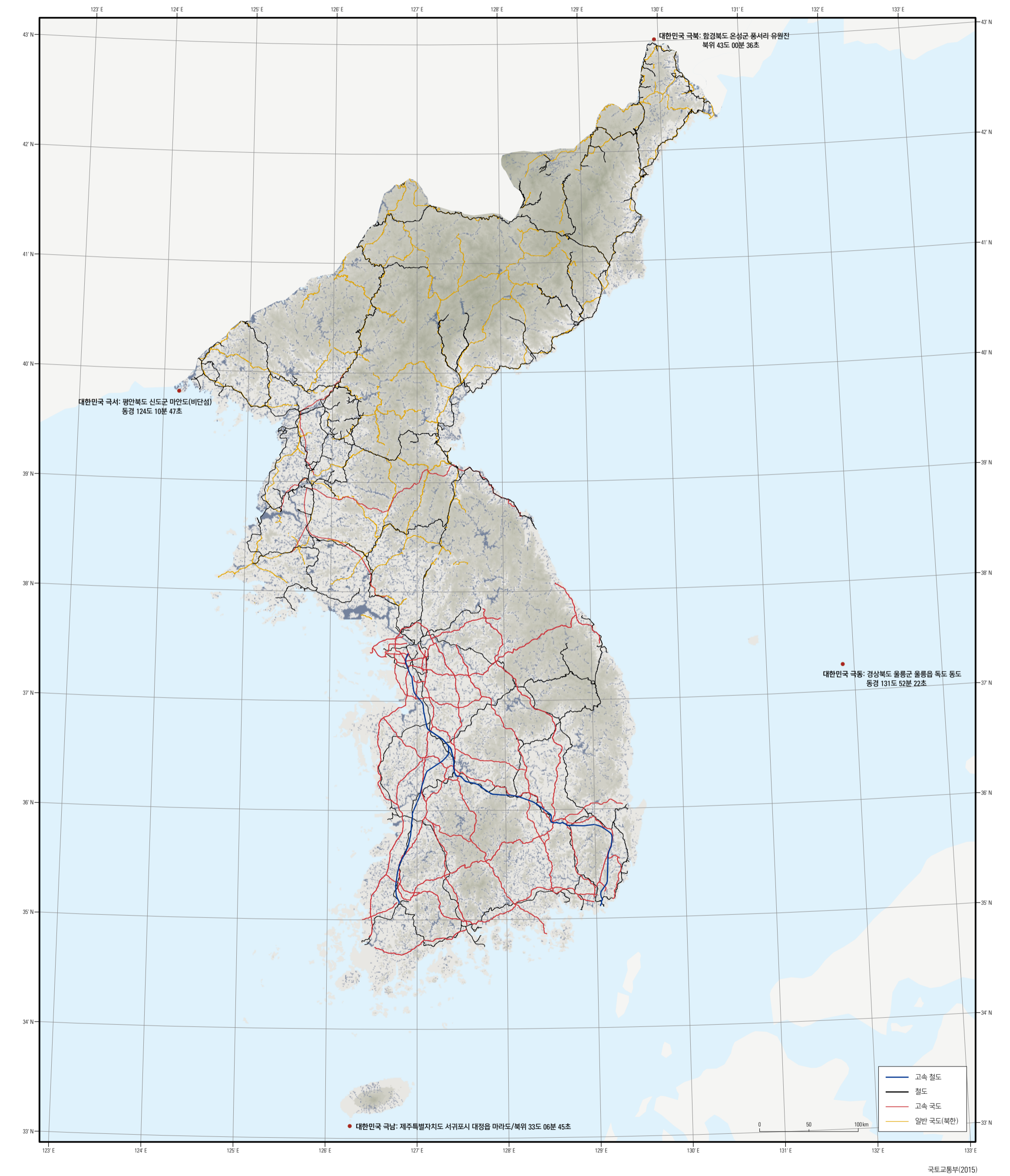
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토 환경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우리는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적 자원의 개발, 국토 기반 시설 건설 및 운송 등을 통해 세계 주요 경제 성장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1972년부터 시작된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통해 주요 기반 시설을 계획·건설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발전시키면서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삶터

는 역동적으로 변했다. 자원 부족, 경제 인구 부족 등 풍요롭다고 할 수 없는 국토에서 대한민국은 부족하나마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개발하였고, 수출, 수입 등을 통해 세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삶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국토 환경을 만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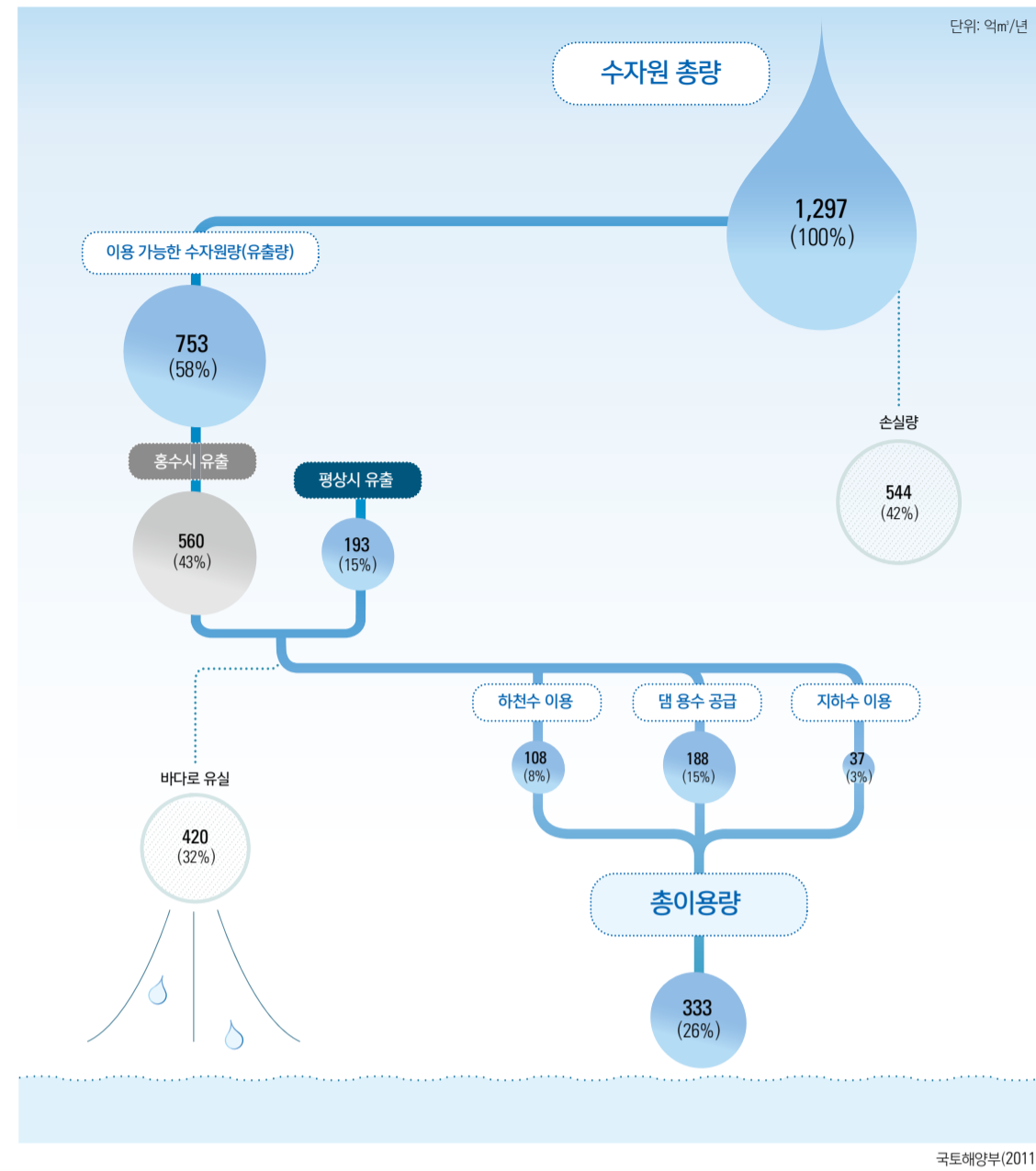
국토 현황

국토와 국가 교통망의 구성



수자원

수자원의 이용(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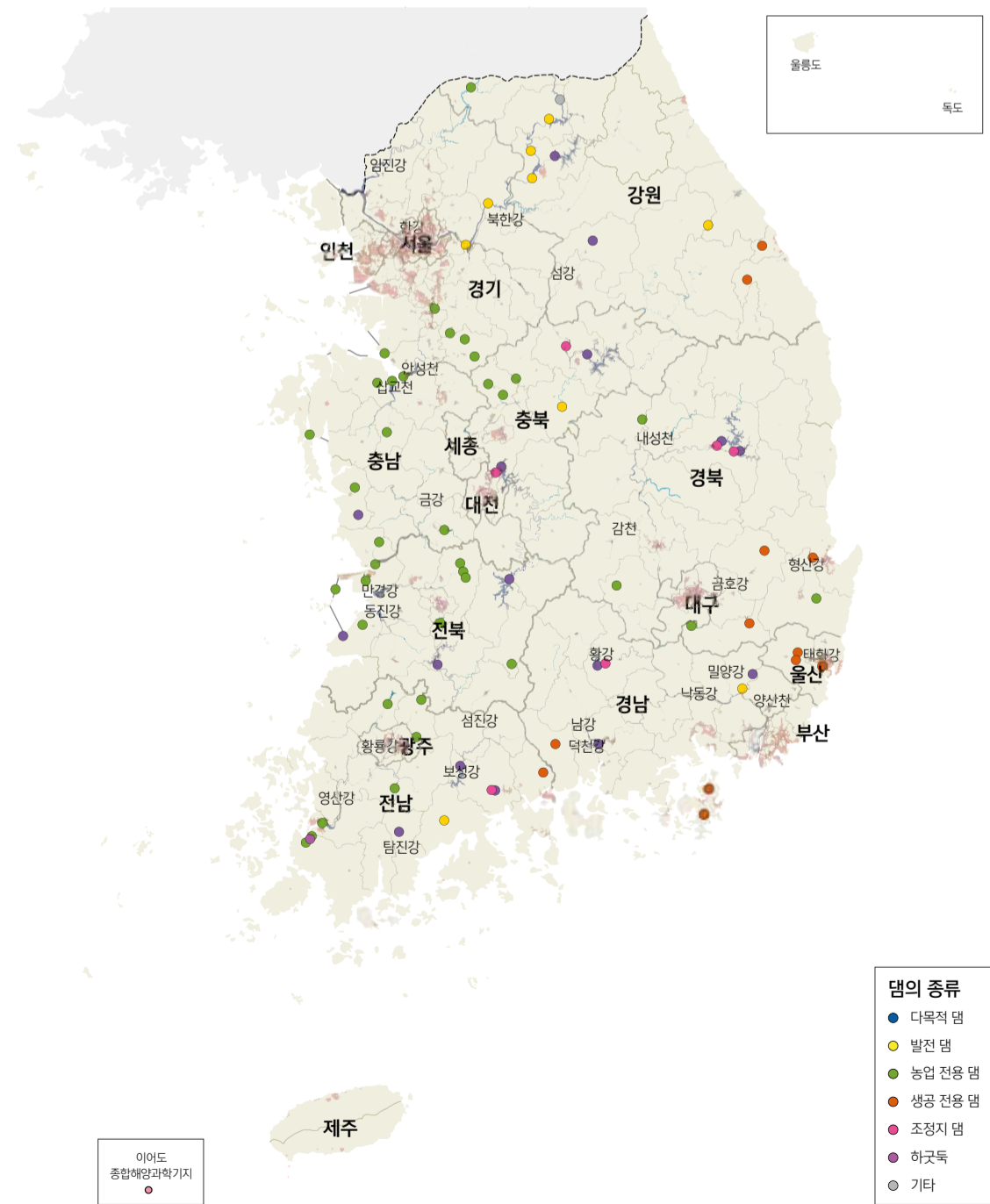
농경을 중시했던 우리 사회에서 수자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원이었다. 20세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서도 수자원은 공업화 및 도시화를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자원이었고, 공간적으로도 한강, 낙동강 등 물이 풍부한 강 주변으로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2011년에 수립된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2011 - 2020년)에 따르면, 국내 수자원 총량(연 강수량 × 국토 면적, 북한 지역 유입량 23억m³ 포함)은 1,297억m³이다. 이 중 증발산량 등으로 인한 손실을 제외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753억m³이다.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커 홍수가 잦은 6월부터 8월에 560억m³(43%)가 유출되며, 평상시 193억m³(15%)가 유출된다. 이 중 바다로 유실되는 수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총 333억m³가 하천수, 댐, 지하수를 통해 공급되어 활용된다. 공급 방식별 이용량을 살펴보면, 댐 용수 공급이 188억m³로 총이용량 중 56.5%를 차지하며, 하천수 이용(108억m³)이 32.4%, 지하수 이용(37억m³)이 11%를 차지한다.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한 우리 국토에서는 주로 제방(댐)을 쌓고 물을 저장하여 수자원을 활용한다. 댐의 유형은 저장된 물의 활용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농업을 위한 농업 전용 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공)업 전용 댐, 전기 생산을 위한 발전 댐, 저수뿐만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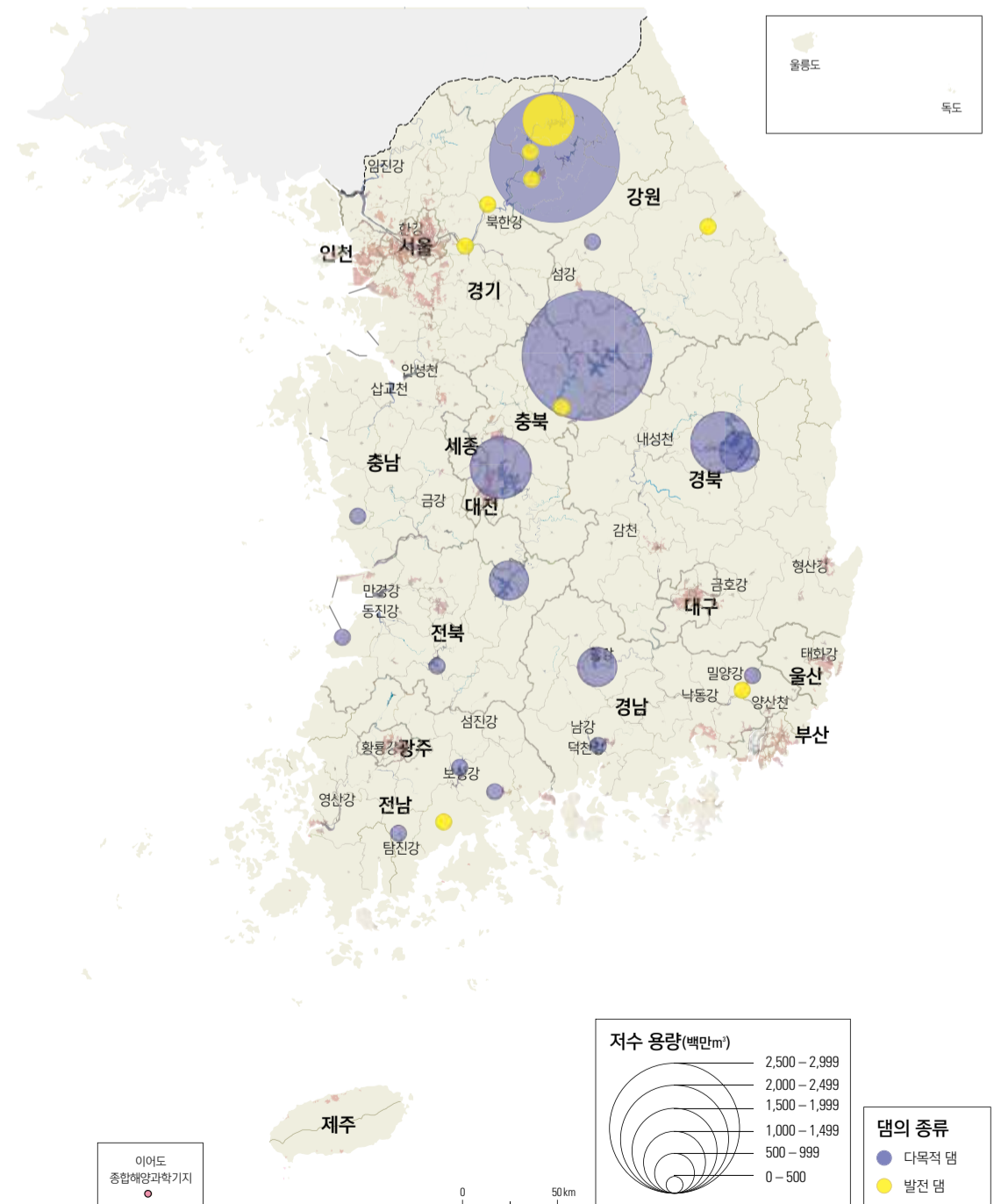
라 수해 방지 등을 위한 하굿둑과 댐의 급작스런 방류로 인한 수위를 조절하는 조정지 댐, 다용도 목적의 다목적 댐으로 구분된다. 특히 다목적 댐은 1966년 4월 23일 제정 공포된 「특정 다목적 댐법」이 규정된 댐이다. 최초의 다목적 댐은 법 제정 이전 하천법에 따라 1965년 준공된 삼진강 댐과 1971년 준공된 남강 댐이 있다. 법 제정 이후 해당 법에 따라 착공한 최초의 댐은 소양강 댐으로 1967년 4월에 착공하여 1973년 10월에 준공되었다. 이후 1999년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댐 관련 법제를 통일하여 보다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7,656개의 댐이 있다. 이 중 다목적 댐이 20개, 생활(공)업 전용 댐이 55개, 수력 발전 댐이 12개, 농업용수 댐이 17,569개가 있으며, 다목적 댐이 전체 저수 용량의 68.3%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다목적 댐 및 발전 댐의 저수량 분포를 보면, 연평균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많은 한강과 낙동강 수계의 저수 용량이 크다. 2015년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저수 용량이 가장 큰 댐은 소양강 댐(한강 수계)으로 연간 2,900백만m³의 규모이며, 충주 댐(한강 수계) 연간 2,750백만m³, 대청 댐(금강 수계) 연간 1,490백만m³, 안동 댐(낙동강 수계) 연간 1,248백만m³ 등의 순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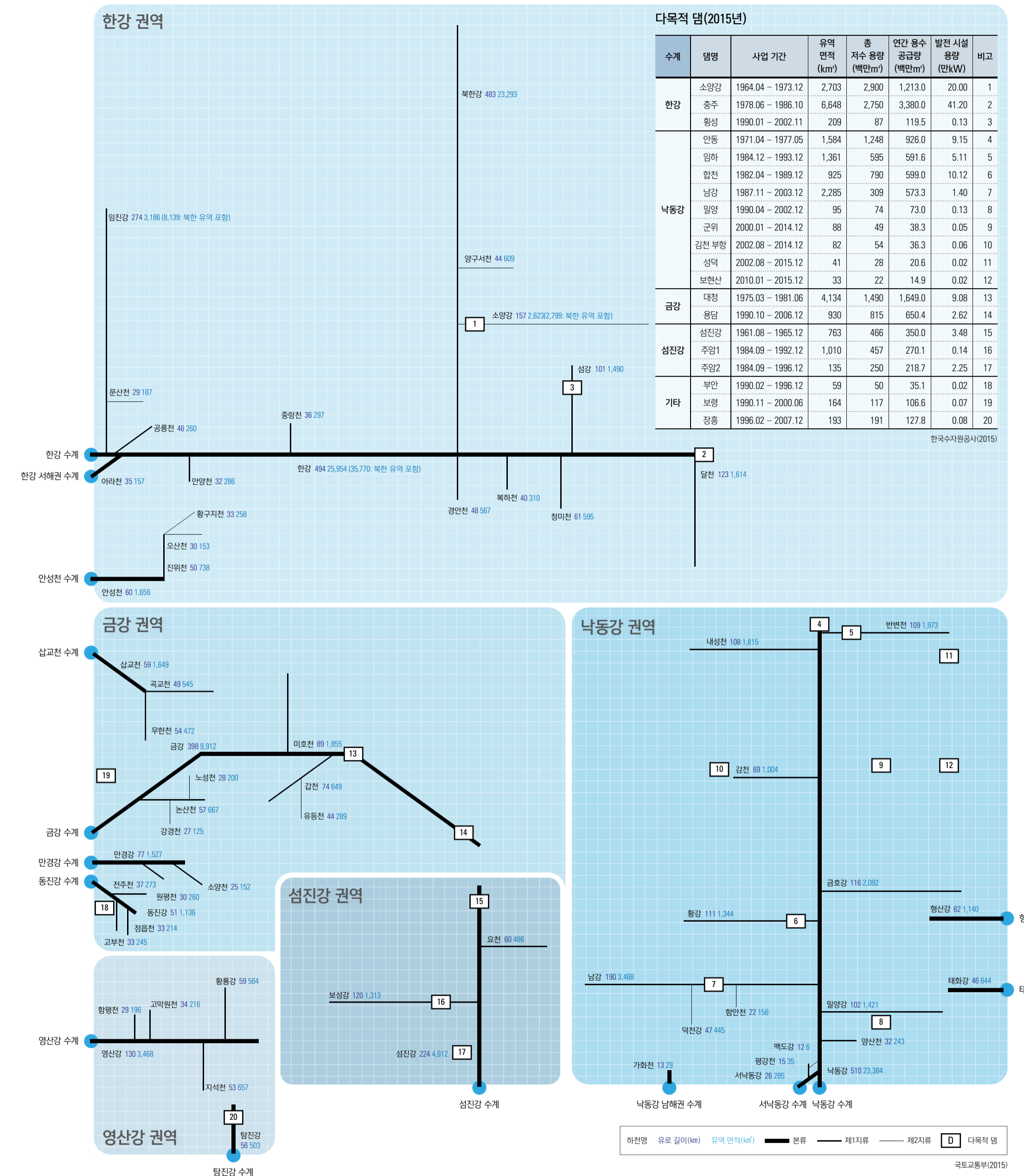
댐의 분포(2015년)



다목적 댐 및 발전 댐의 저수량(2015년)



수계와 유역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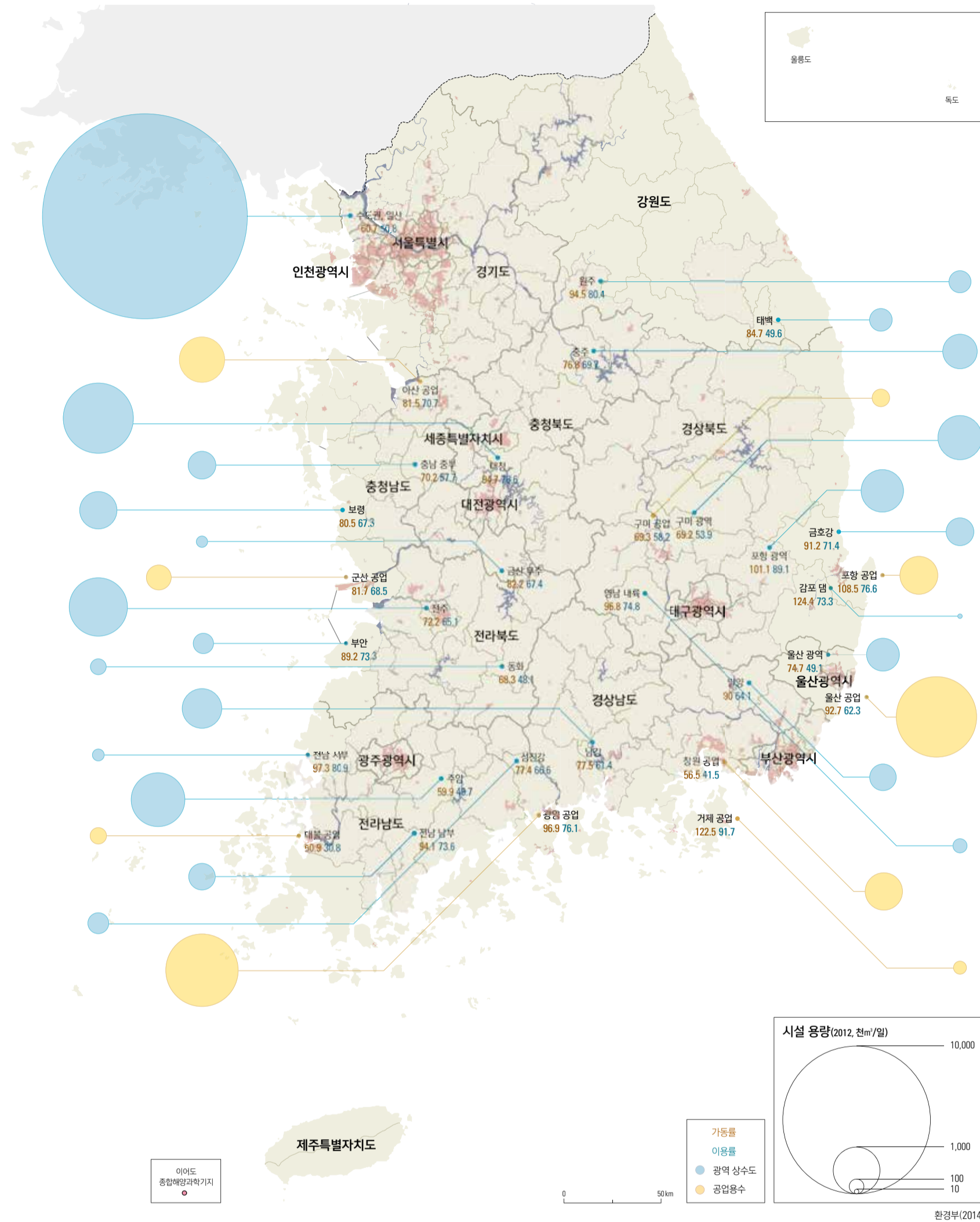


다목적 댐(2015년)

수계	댐명	시업 기간	유역 면적 (km²)	총 저수 용량 (백만m³)	공급량 (백만m³)	연간 용수 용량 (만kW)	발전 시설 용량 (만kW)	비고
한강	소양강	1964.04 - 1973.12	2,703	2,900	1,213.0	20.00	1	
	충주	1978.06 - 1986.10	6,648	2,750	3,380.0	41.20	2	
	횡성	1990.01 - 2002.11	209	87	119.5	0.13	3	
낙동강	안동	1971.04 - 1977.05	1,584	1,248	926.0	9.15	4	
	임하	1984.12 - 1993.12	1,361	595	591.6	5.11	5	
	합천	1982.04 - 1989.12	925	790	599.0	10.12	6	
	남강	1987.11 - 2003.12	2,285	309	573.3	1.40	7	
	달양	1990.04 - 2002.12	95	74	73.0	0.13	8	
	군위	2000.01 - 2014.12	88	49	38.3	0.05	9	
	김천 부항	2002.08 - 2014.12	82	54	36.3	0.06	10	
금강	성덕	2002.08 - 2015.12	41	28	20.6	0.02	11	
	보현산	2010.01 - 2015.12	33	22	14.9	0.02	12	
섬진강	대청	1975.03 - 1981.06	4,134	1,490	1,649.0	9.08	13	
	용담	1990.10 - 2006.12	930	815	650.4	2.62	14	
기타	삼진강	1961.08 - 1965.12	763	466	350.0	3.48	15	
	주암1	1984.09 - 1992.12	1,010	457	270.1	0.14	16	
	주암2	1984.09 - 1996.12	135	250	218.7	2.25	17	
	부안	1990.02 - 1996.12	59	50	35.1	0.02	18	
	보령	1999.11 - 2000.06	164	117	106.6	0.07	19	
	장흥	1996.02 - 2007.12	193	191	127.8	0.08	20	

상수도 공급

광역 상수도 공급 현황(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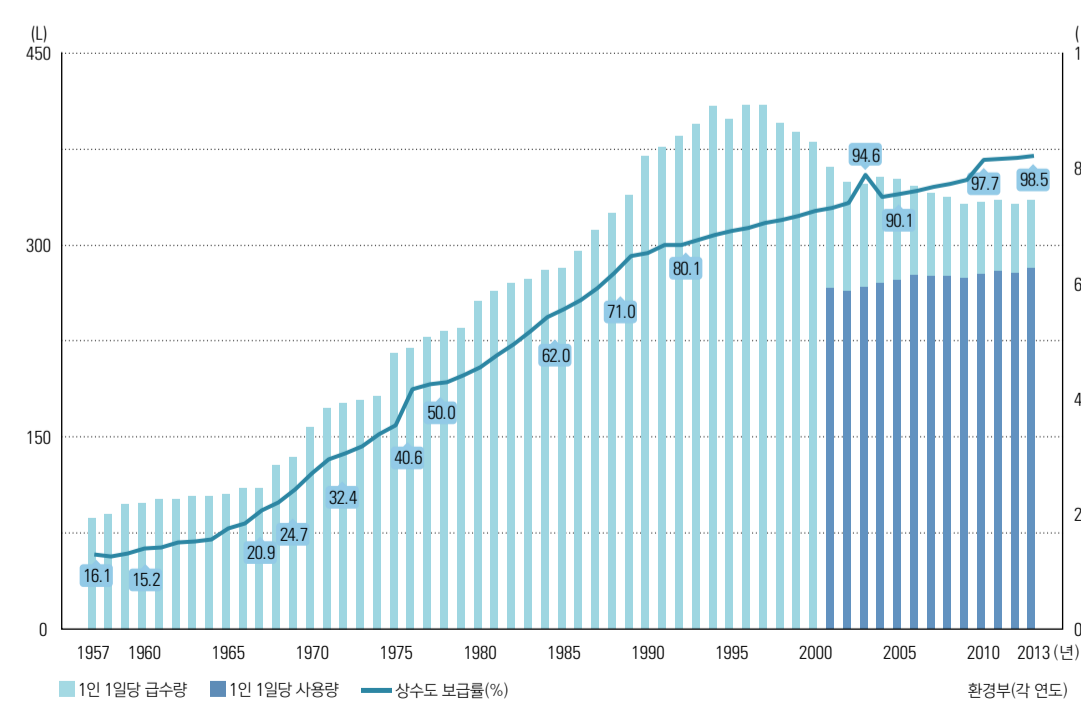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1955년 상수도 보급률은 16.1%로 1인당 1일 71.0L의 물을 공급했다. 1976년 보급률은 50%였으나 2013년 현재 보급률은 98.5%에 달하며, 1인당 1일 335L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시도별 상수도 공급량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1인 1일 457L로 가장 많고, 부산광역시가 281L로 가장 적다. 반면 상수도 물 사용량의 경우, 전국 평균이 1인 1일 282L이며(335L 전용 공업용수 제외), 경상남도가 244L로 가장 적고 충청북도가 349L로 가장 많다.

상수도 보급 시스템은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 시설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총 51,325천 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지방 상수도가 전체의 74.0%를 차지하여, 37,964천 명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고, 광역시를 제외한 시와 군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 상수도가 전체의 23.3%로, 11,946천 명에게 물을 공급한다. 특히 지방 상수도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162개(특별/광역시 7개, 특별자치시 1개, 특별자치도 1개, 시 75개, 군 78개)가 있으며, 광역 상수도 사업자는 하나로 단일화되어 있다.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시스템은 취수 시설-정수 시설-관로 공급으로 구성되고, 수돗물을 저장하였다가 배수량의 시간적 변화에 대응하여 배수량을 조절하는 배수지가 있다. 전국의 취수 시설은 589개소가 있으며, 시설 용량은 37,181천m³/년, 취수장 가동률은 66.2%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라북도가 가동률 56.4%로 가장 높고, 부산광역시가 43.4%로 가장 낮다. 취수원은 하천 표류수가 18,569천m³/일(49.9%), 댐이 16,073천m³/일(43.2%)로 전체 취수원의 93.1%를 차지하며, 그 외 하천 복류수(4.4%), 지하수(1.5%), 기타 저수지(1.0%)의 순이다.

시도별 정수장의 가동률은 전라북도가 98.4%, 세종특별자치시 94.9% 순으로 높고, 대전광역시가 52.2%로 가장 낮다. 수도관의 총길이는 2013년 현재 185,778km에 달하며, 이 중 97.2%가 지방 상수도에 속한다. 수도관은 도수관(취수 시설→정수장), 송수관(정수 시설→배수 구역), 배수관(배수지→급수 지역), 급수관(배수관→소비지)으로 구성되며, 총연장의 91.3%가 배수관(53.9%)과 급수관(38.4%)에 해당된다. 배수지는 총 1,896개소로 경기도(251개)와 경상북도(245개)에 가장 많은 수가 분포하고,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각각 16개, 8개 로 가장 적은 수가 분포한다.

상수도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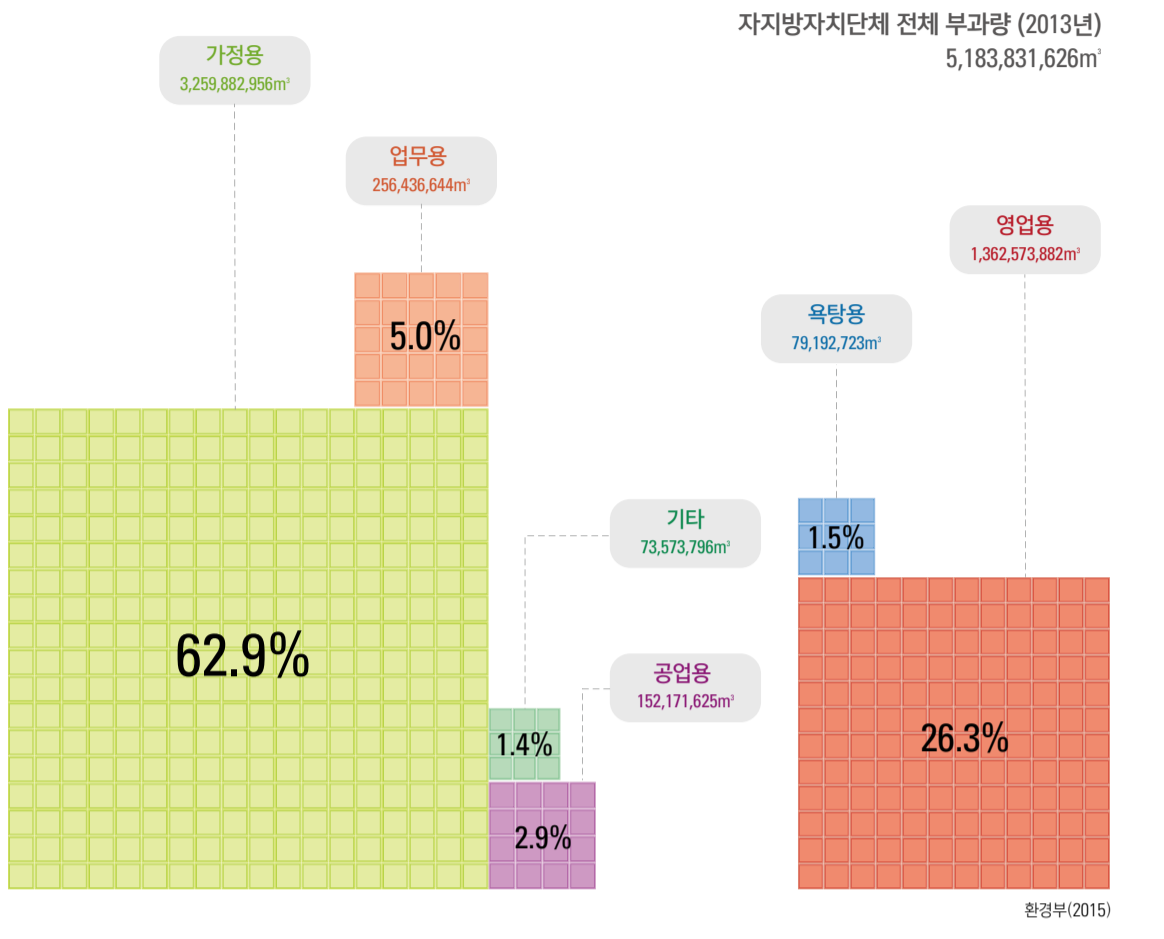
용수 전용 댐(2015년)

수계	댐명	사업 기간	유역 면적 (km ²)	연간 용수 공급량 (백만m ³)		용수 공급(백만m ³)		
				총 지수 용량 (백만m ³)	공급량	생공	농업	유지
태백권	광동 댐	1985.12 - 1989.09	125.0	11.0	26.4	25.6	0.8	-
	달방 댐	1986.11 - 1990.05	29.4	7.7	14.6	13.1	0.3	1.2
포항권	영천 댐	1974.11 - 1980.12	235.0	96.4	107.3	80.3	12.4	14.6
	안계 댐	1968.08 - 1971.12	6.7	17.7	-	-	-	-
운문권	운문 댐	1985.12 - 1994.09	301.3	135.3	162.4	137.2	2.8	22.4
	대곡 댐	1999.04 - 2005.12	57.5	28.5	32.1	32.1	-	-
울산권	사연 댐	1962.10 - 1965.12	67.0	25.0	68.8	65.7	-	0.1
	대암 댐	1968.02 - 1969.12	77.0	9.5	18.3	18.3	-	-
거제권	연초 댐	1977.12 - 1978.12	11.7	5.0	6.3	5.8	0.4	-
	구천 댐	1984.05 - 1987.11	12.7	9.7	7.5	7.3	0.2	-
여수권	수어 댐	1974.08 - 1978.05	49.0	27.5	29.7	27.4	2.3	-
	평원 댐	2001.11 - 2007.12	19.9	8.5	11.8	8.8	1.7	1.3
내륙간 하굿둑		1983.09 - 1990.06	23,560	-	750.0	75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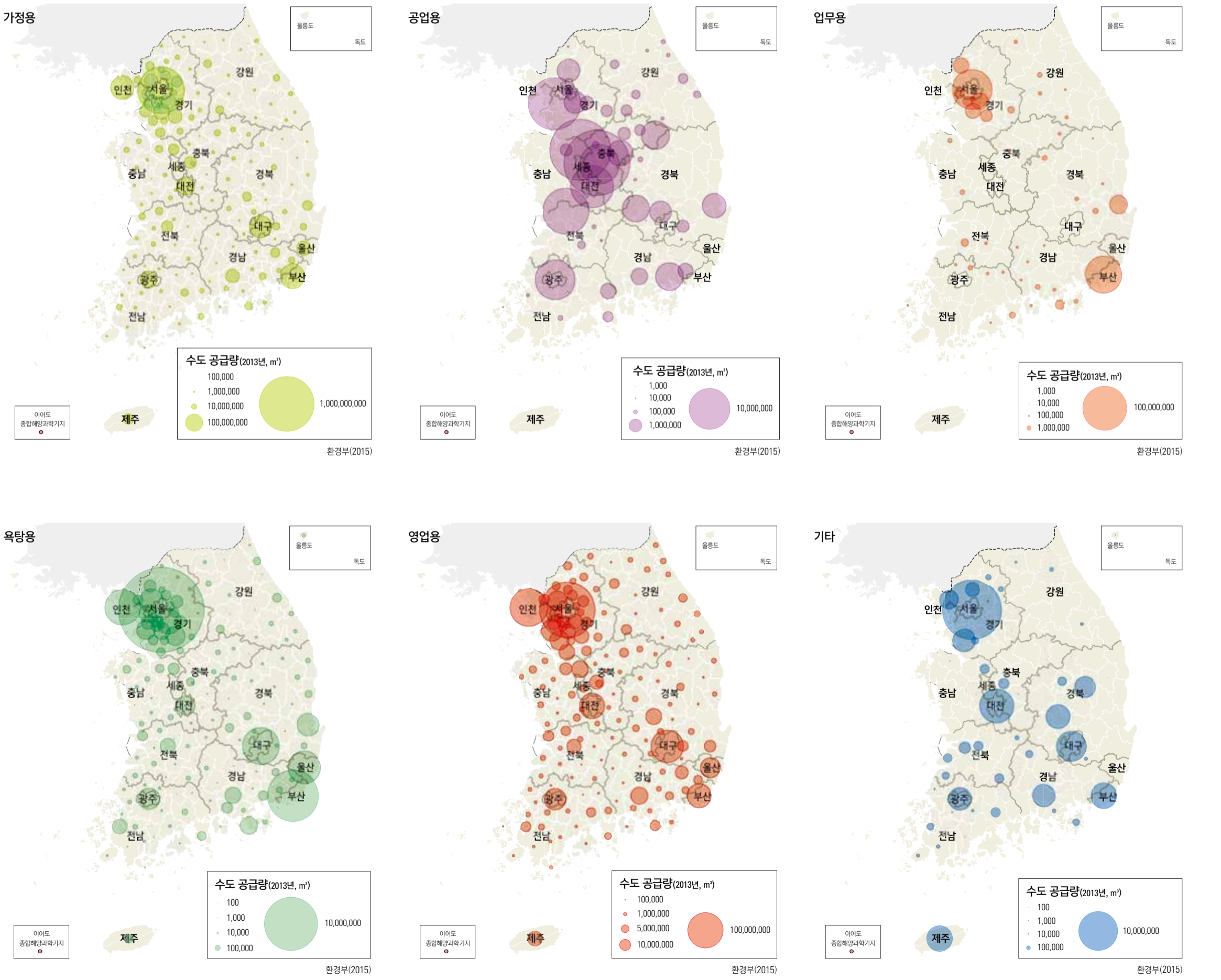
사업자별 상수도 공급량(2013년)

수도 사업자	직접 급수량 (m ³)	급수 인구 (명)	1인 1일 급수량 (L/인/일)	1인 1일 사용량 (L/인/일)
지방 자치 단체	6,107,966,052	49,909,682	335.3	281.8
서울특별시	1,141,604,352	10,388,055	301.1	283.7
부산광역시	364,918,971	3,562,753	280.6	257.9
대구광역시	280,253,835	2,522,020	304.4	277.1
인천광역시	349,860,892	2,884,226	332.3	295.4
광주광역시	172,442,229	1,481,922	318.8	270.0
대전광역시	187,056,585	1,544,418	331.8	297.2
울산광역시	120,534,773	1,152,779	286.5	256.7
세종특별자치시	15,349,253	97,167	432.8	301.1
경기도	1,421,425,199	12,238,599	318.2	280.6
강원도	230,162,599	1,378,366	457.5	302.3
충청북도	217,371,727	1,422,225	418.7	349.0
충청남도	257,665,750	1,702,950	414.5	322.7
전라남도	260,402,807	1,777,836	401.3	275.2
전라북도	215,678,036	1,601,942	388.9	244.9
경상북도	401,037,705	2,427,689	452.6	308.5
경상남도	389,837,204	3,122,065	342.1	243.8
제주특별자치도	82,364,135	604,670	373.2	287.0
한국수자원공사	1,574,239,282	0	0.0	0.0

상수 용도별 요금 부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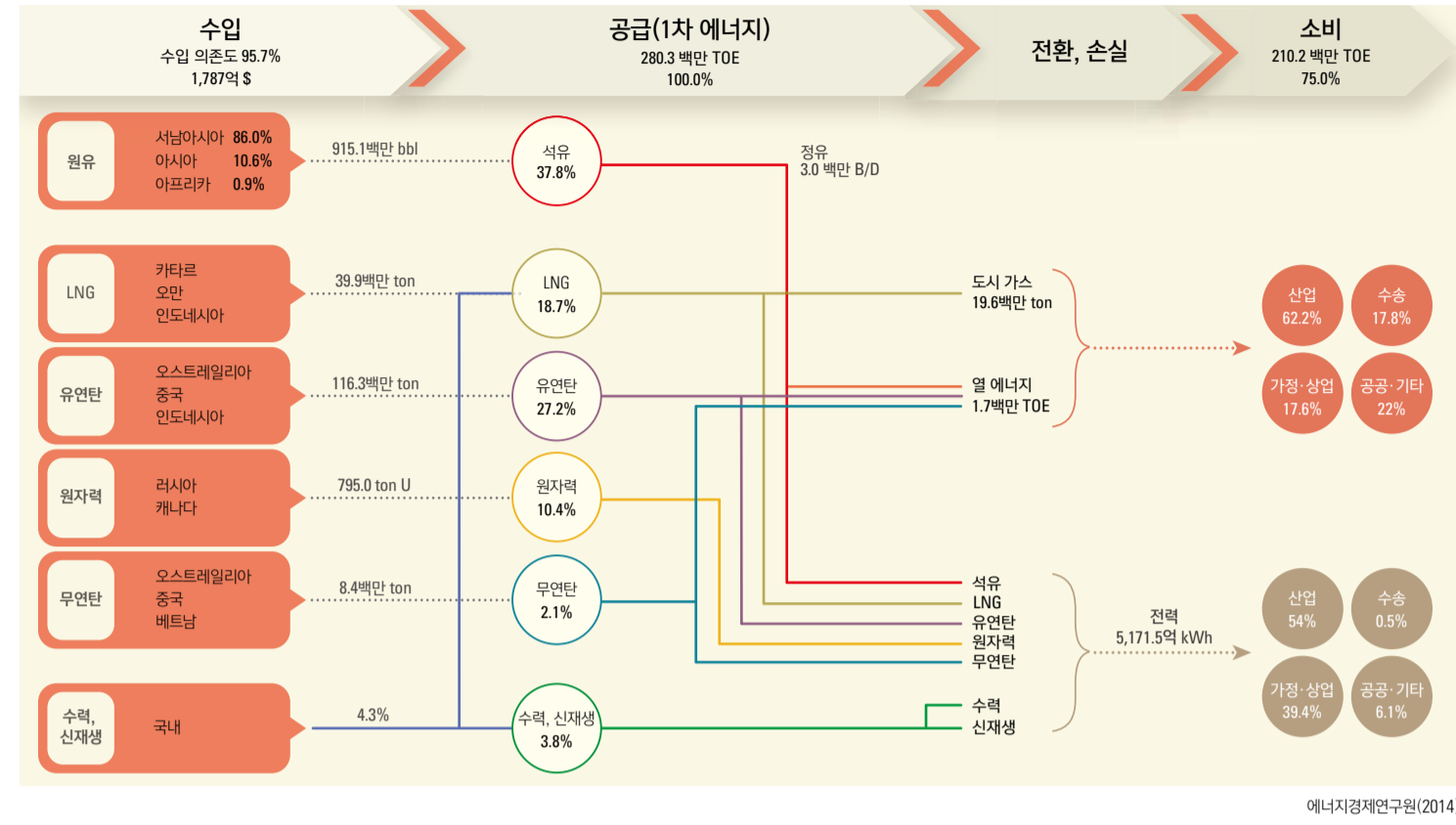


지방 자치 단체 용도별 수도 공급량(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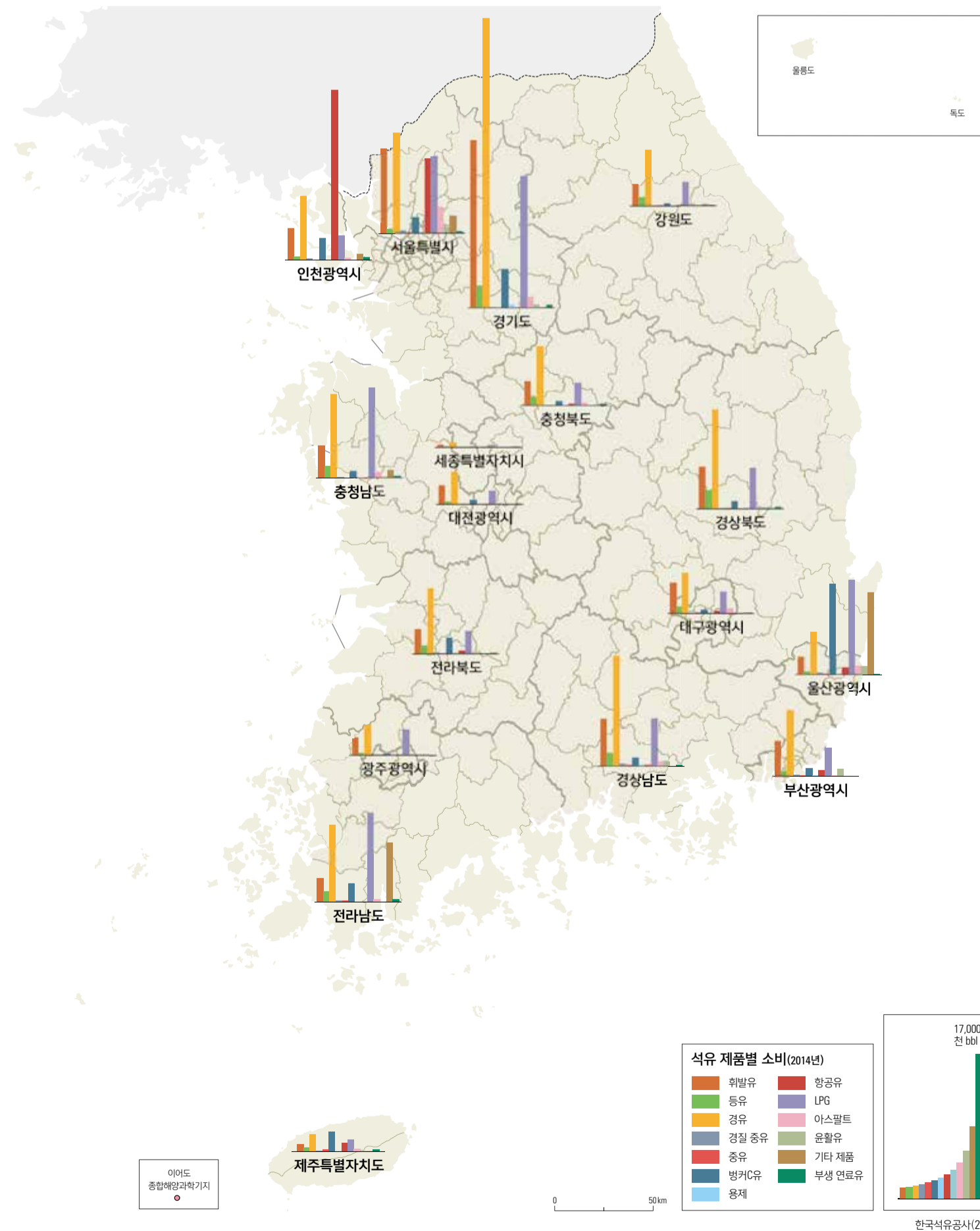


에너지와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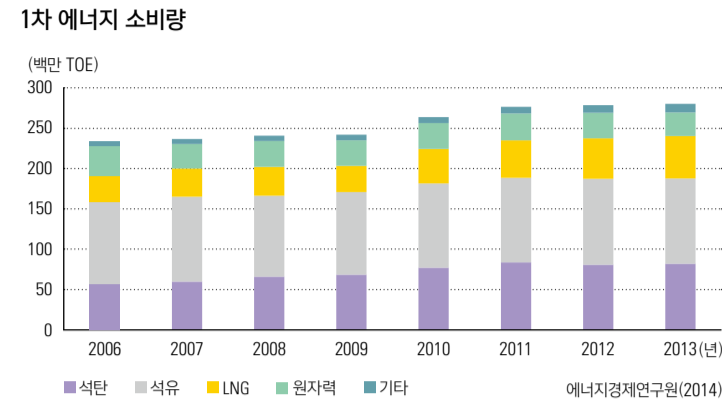
에너지 흐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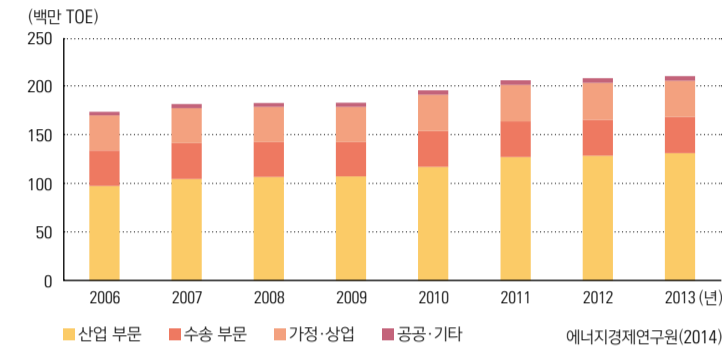
시·도별 석유 제품별 소비량



에너지 수급 현황(2014년)



최종 에너지 소비량



시·도별 에너지 소비 현황(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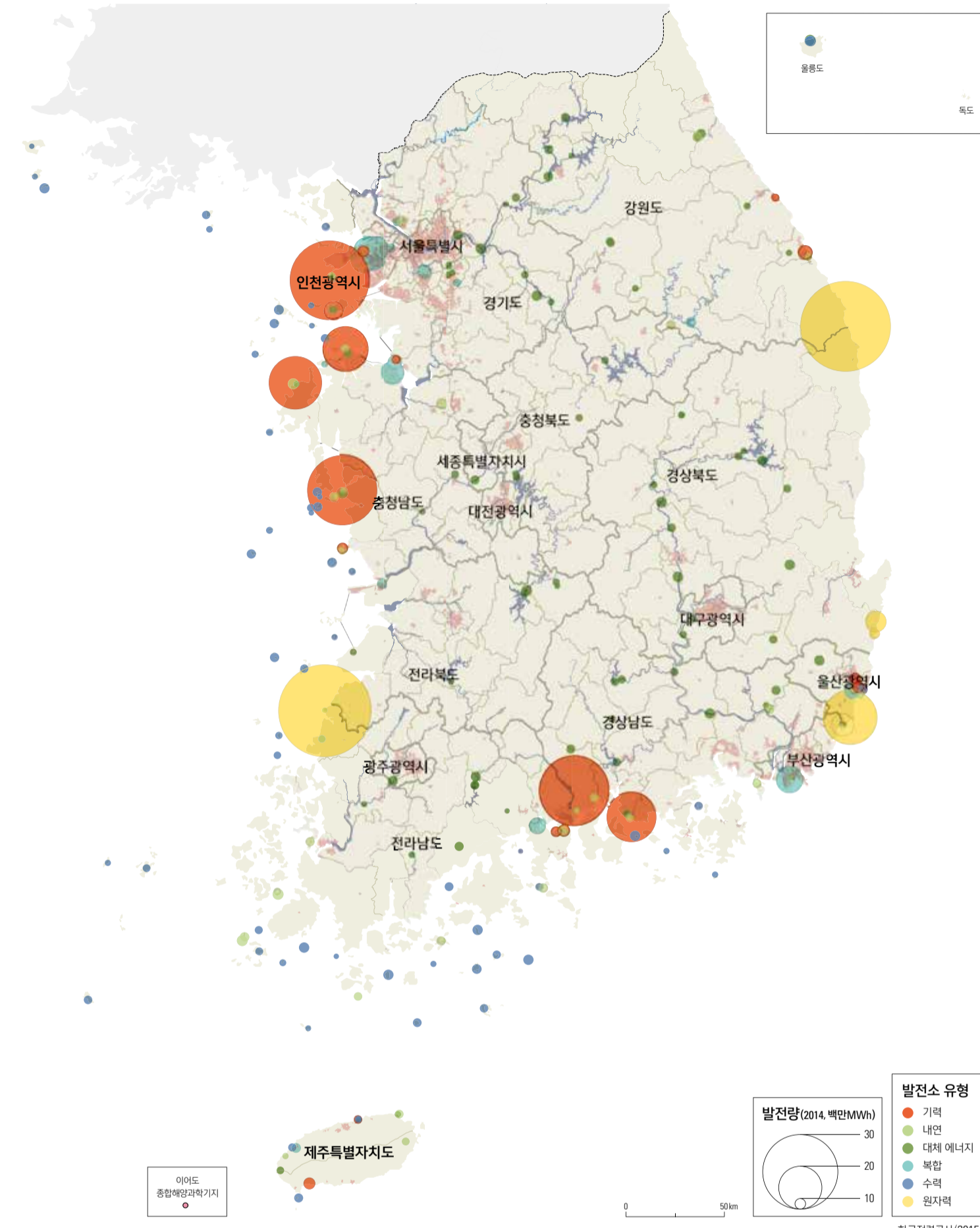
구분	계		산업		건물	
	사용량 (천 TOE)	구성비 (%)	사용량 (천 TOE)	구성비 (%)	사용량 (천 TOE)	구성비 (%)
서울	1,437	1.6	455	0.5	982	42.2
부산	949	1.1	801	0.9	148	6.4
대구	796	0.9	735	0.8	61	2.6
인천	4,819	5.4	4,711	5.4	108	4.6
광주	387	0.4	342	0.4	45	1.9
대전	579	0.6	405	0.5	174	7.5
울산	9,857	11	9,839	11.3	19	0.8
세종	156	0.2	150	0.2	6	0.3
경기	9,591	10.7	9,142	10.5	449	19.3
강원	2,827	3.2	2,725	3.1	102	4.4
충북	2,637	2.9	2,603	3	34	1.5
충남	16,846	18.8	16,796	19.2	49	2.1
전북	2,552	2.8	2,516	2.9	36	1.5
전남	22,619	25.2	22,610	25.9	9	0.4
경북	11,842	13.2	11,802	13.5	39	1.7
경남	1,757	2	1,713	2	45	1.9
제주	28	0	9	0	18	0.8
계	89,678	100	87,354	100	2,324	100

* 최종 에너지를 기준으로 작성됨, TOE는 원유 1톤이 달하는 열량, 1,000만 kcal를 말함. 산업통상자원부(2014)

우리나라는 수입원 석유, 가스, 석탄, 우라늄 등의 1차 에너지를 도시 가스, 열 에너지, 전력 등으로 전환하여 최종 에너지로 사용하는 에너지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소비량은 210백만 TOE로 30년 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 의존도 또한 함께 상승하여 1981년 기준 75.0%에서 2013년에는 95.7%까지 올랐다. 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는 석유(37.8%)로, 85% 이상을 서남아시아에서 수입하며, 유연탄(27.2%) 및 무연탄(2.1%)과 함께 열 에너지 및 전력으로 전환된다. LNG(18.7%)는 도시 가스와 전력으로 전환된다. 한편 원자력, 수력 및 신재생 에너지는 모두 전력으로 전환되는데, 1차 에너지 공급량의 10.4%와 3.8%를 각각 차지한다.

비전력 에너지 소비량 부문별 소비 내용을 살펴 보면 산업이 약 62.2%로 전체 사용량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가정 및 상업(17.6%), 수송(17.8%), 공공(2.2%)이 그 뒤를 따른다.

발전 유형별 전력 생산 분포(2014년)



발전 유형별 전력 생산량

연도	수력	기력	내연력	원자력	복합 화력	집단, 대체 에너지	계
1979	2,328,529	31,840,761	1,278,747	3,151,904	-	-	38,599,941
1980	1,984,090	31,256,437	420,952	3,477,154	-	-	37,238,633
1981	2,708,530	34,304,653	296,277	2,897,205	-	-	40,206,665
1982	2,005,250	36,962,751	376,926	3,777,289	-	-	43,122,216
1983	2,722,617	36,906,748	255,899	8,965,058	-	-	48,850,322
1984	2,398,735	39,476,841	139,958	11,792,059	-	-	53,807,593
1985	3,659,080	37,484,207	118,749	16,745,341	-	-	58,007,377
1986	4,019,381	32,189,899	174,573	28,311,217	-	-	64,695,070
1987	5,344,196	29,096,143	237,259	39,314,193	-	-	73,991,791
1988	7,132,152	41,413,570	208,725	40,100,672	-	-	89,028,164
1989	9,115,900	42,074,929	252,965	47,365,172	-	-	99,029,884
1990	12,722,706	47,373,994	429,062	52,886,562	-	-	114,030,855
1991	10,101,464	56,000,432	471,635	56,310,750	-	-	123,669,247
1992	9,726,446	63,531,023	574,046	56,530,214	-	-	135,825,758
1993	12,012,158	70,464,207	640,467	58,138,203	-	-	150,442,897
1994	8,196,504	85,407,970	789,923	58,650,918	-	-	169,091,029
1995	10,955,636	91,131,262	824,819	67,028,647	-	-	190,138,743
1996	10,402,648	98,653,519	771,846	73,924,340	-	-	210,694,879

* 상용차기 전력 생산량 제외

우리나라의 총 전기 발전량은 1961년 1.94백만 MWh에서 2014년 542백만MWh로 약 300배 가량 증가했다. 전기의 주요 발전원은 크게 수력, 기력, 내연력, 원자력, 복합, 집단 및 대체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 발전량이 가장 큰 발전원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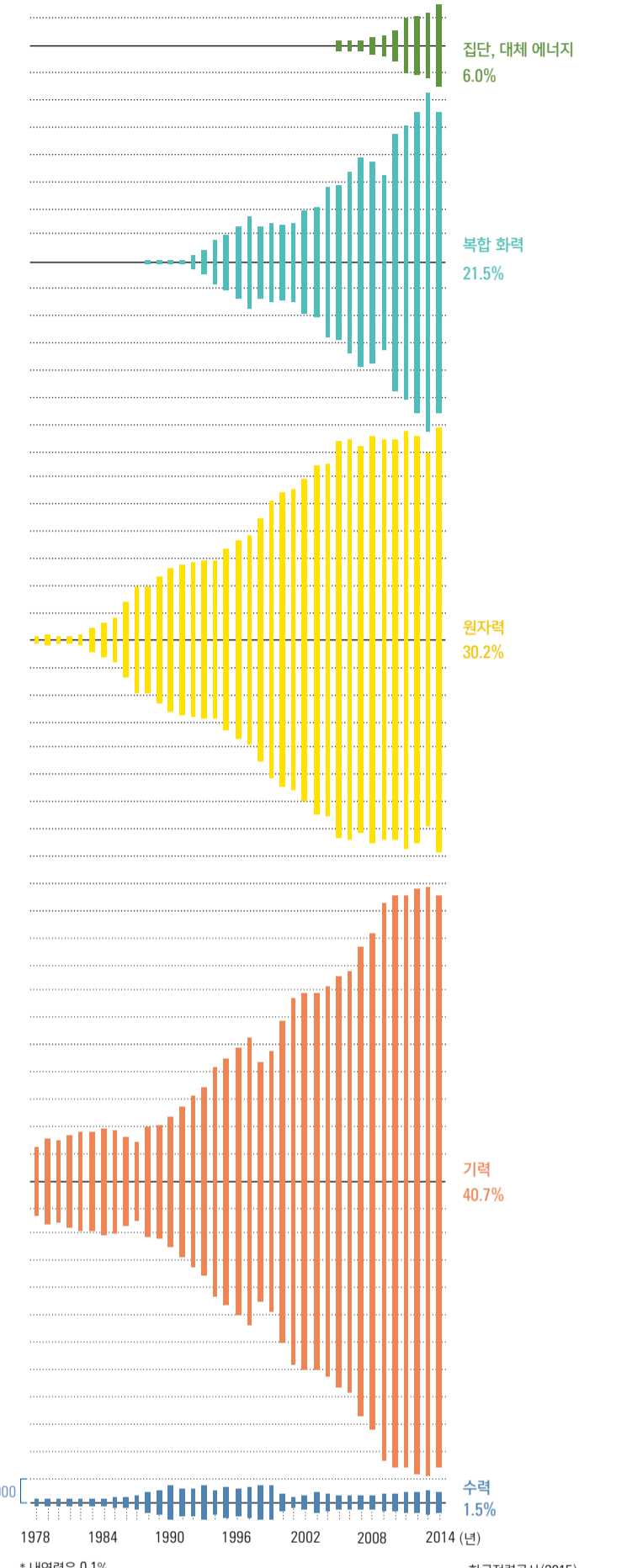
력 발전으로 2014년 211백만MWh를 생산하여 전체 발전량 중 38.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원자력 발전 28.8%, 복합 발전 12.1%의 순으로 높다. 발전원 유형별 발전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내연력이 1961년 0.002백만MWh에서 2014년 0.66백만

연도	수력	기력	내연력	원자력	복합 화력	집단, 대체 에너지	계
1997	10,807,050	106,813,290	718,025	77,065,649	-	-	229,848,125
1998	12,198,072	89,041,578	575,291	89,688,972	-	-	218,008,960
1999	12,132,466	96,472,548	381,697	103,063,779	-	-	240,725,536
2000	5,609,822	119,947,533	293,861	108,963,740	-	-	261,678,096
2001	4,150,753	135,436,741	324,939	112,133,033	-	-	281,078,437
2002	5,311,047	138,929,484	353,023	119,102,905	-	-	302,033,410
2003	6,886,983	140,269,475	370,125	129,671,763	-	-	317,572,952
2004	5,861,435	145,364,710	406,895	130,714,816	-	-	337,799,797
2005	5,188,889	151,207,195	575,339	148,779,023	-	-	364,369,989
2006	5,218,621	155,919,915	677,296	148,748,887	-	-	380,802,014
2007	5,042,462	173,154,074	578,356	142,937,164	-	-	402,294,438
2008	5,562,650	163,656,356	502,708	150,957,936	-	-	421,625,849
2009	5,841,163	205,535,073	696,953	147,770,807	-	-	432,747,611
2010	6,471,903	211,449,271	730,695	148,595,712	-	-	474,311,709
2011	7,830,652	211,204,803	820,533	154,723,107	-	-	496,079,933
2012	7,652,301	216,336,004	752,070	150,327,293	-	-	507,480,207
2013	8,393,929	218,585,257	740,935	138,783,973	-	-	515,466,932
2014	7,819,548	211,171,971	655,810	156,406,511	-	-	518,665,881

한국전력공사(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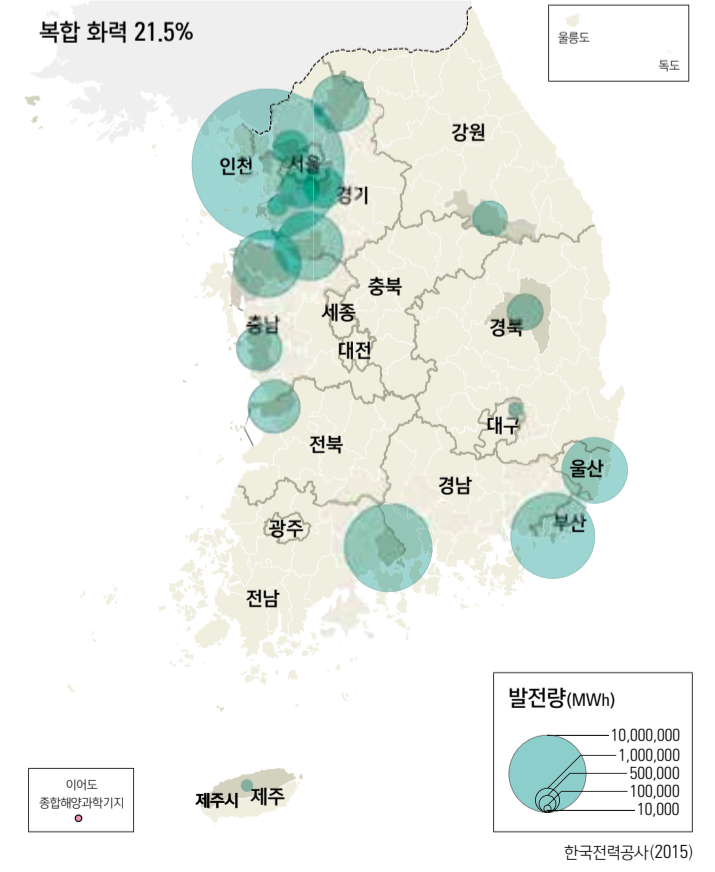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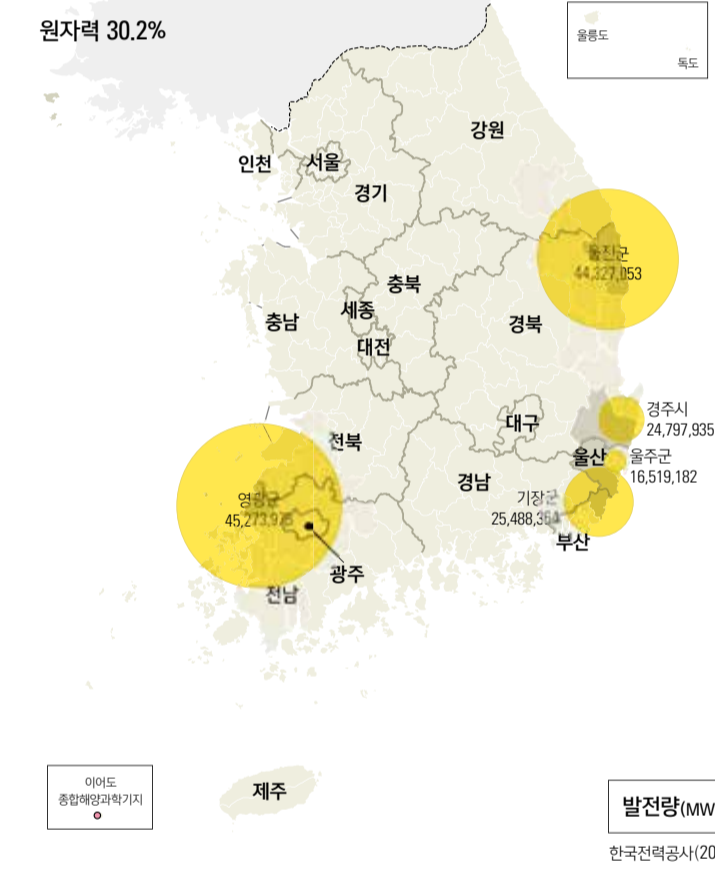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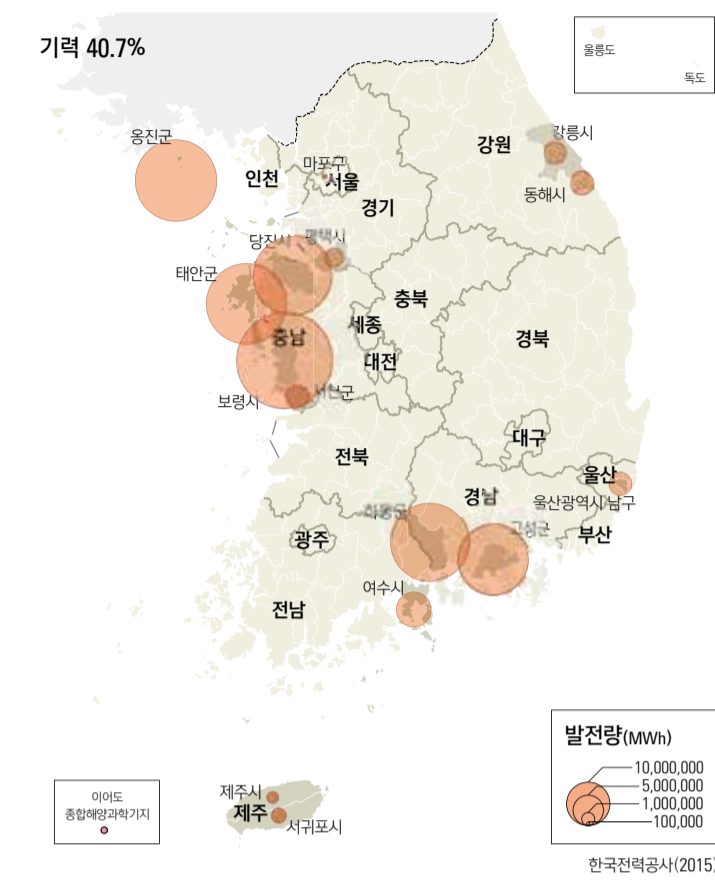
MWh로 약 330배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집단 및 대체 에너지가 2004년 0.01백만MWh에서 2014년 3.3백만MWh로 약 306배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전기 발전량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주로 서해안과 동남부 해안가에

유형별 전력 생산량 추이(1978 - 2014년)



전력 유통 및 소비

유형별 발전량(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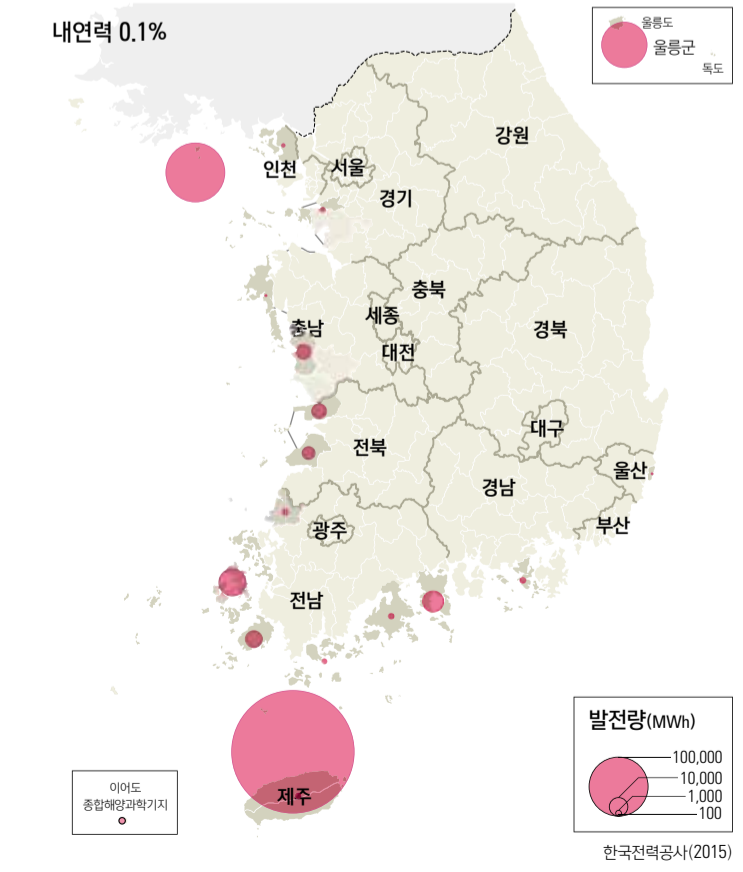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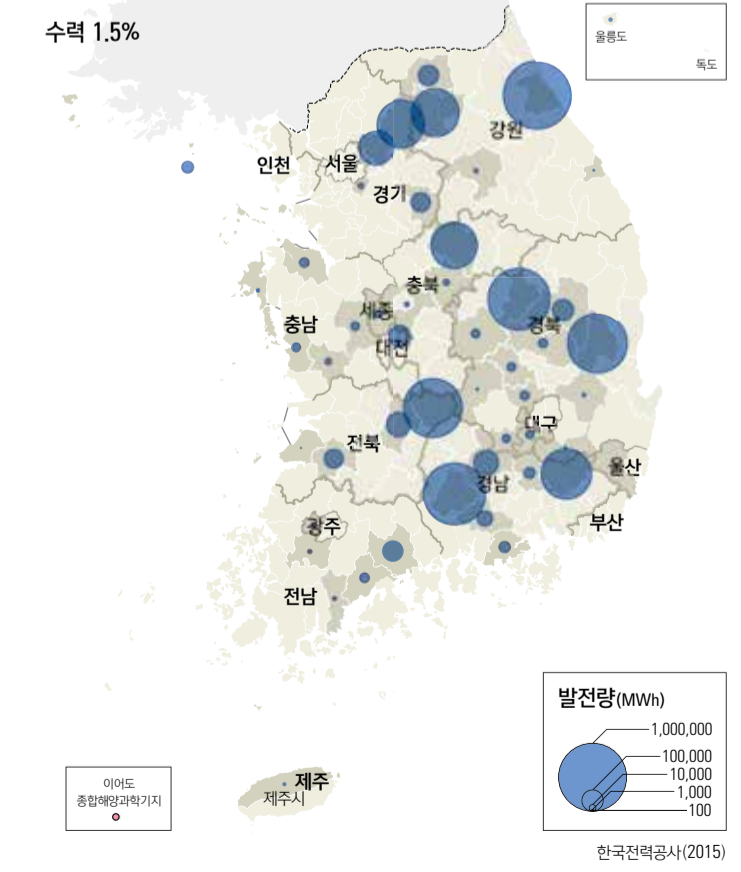


전력 계통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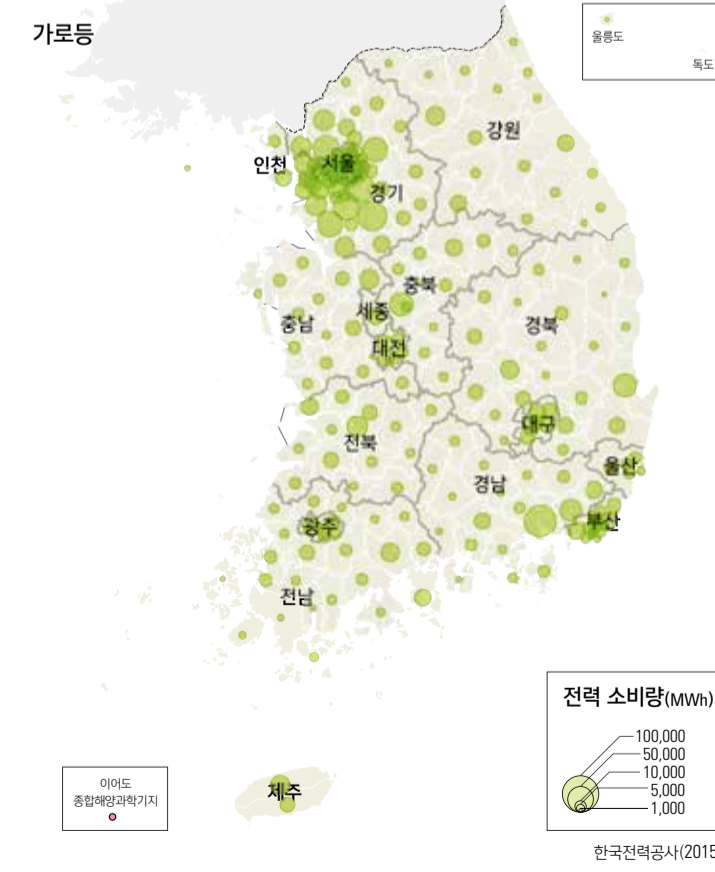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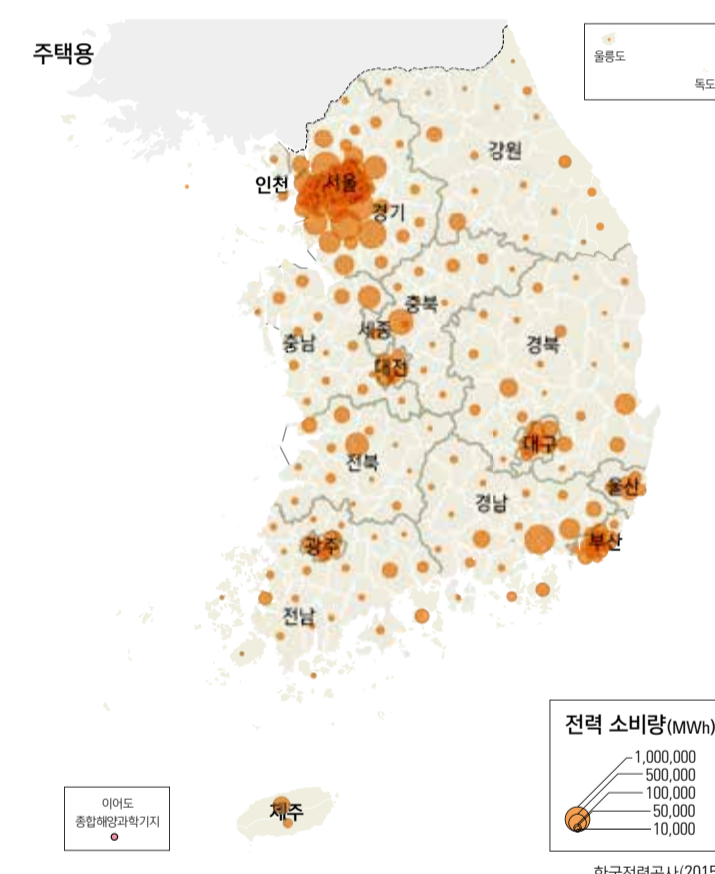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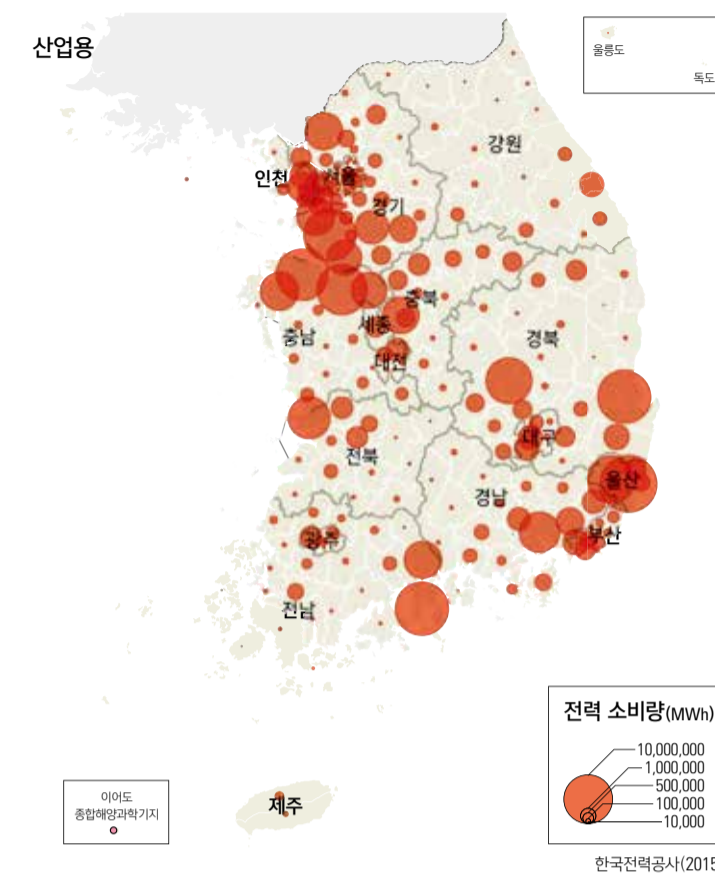


시군-구별 발전량을 살펴보면 발전원의 유형에 따라 다소 다른 지리적 분포를 보인다. 기력, 내연력, 복합 화력은 전력 수요가 많은 대도시 및 산업 단지 근처에 많이 분포하며, 원료 수급과 냉각수 활용이 용이한 해안에 분포한다. 내연력 발전은 발전기의 크기가 작고 가벼운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서해안의 소도시 및 도서 지역에 많다. 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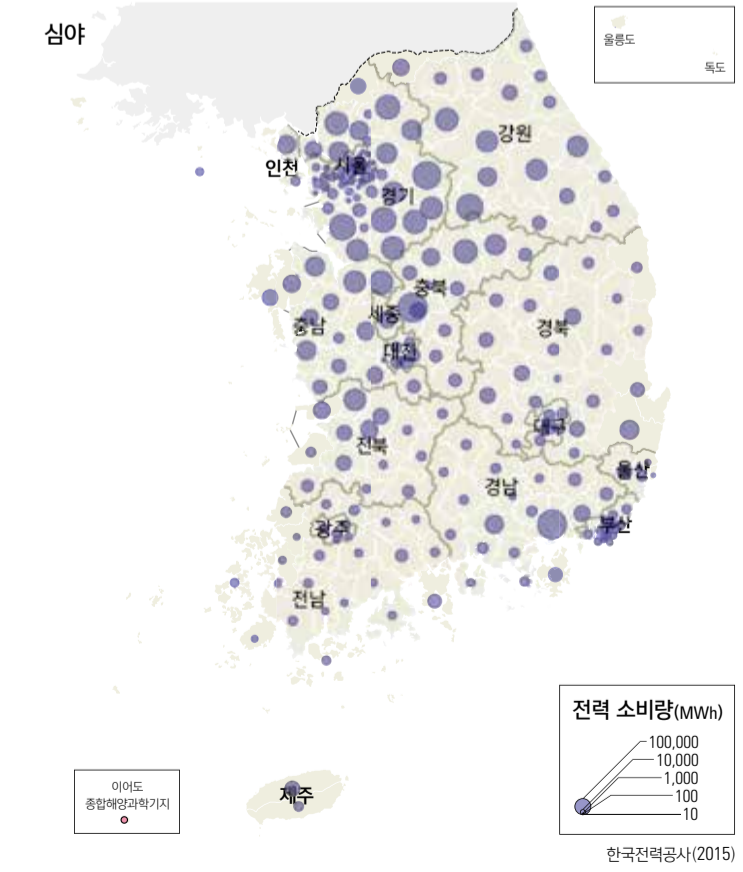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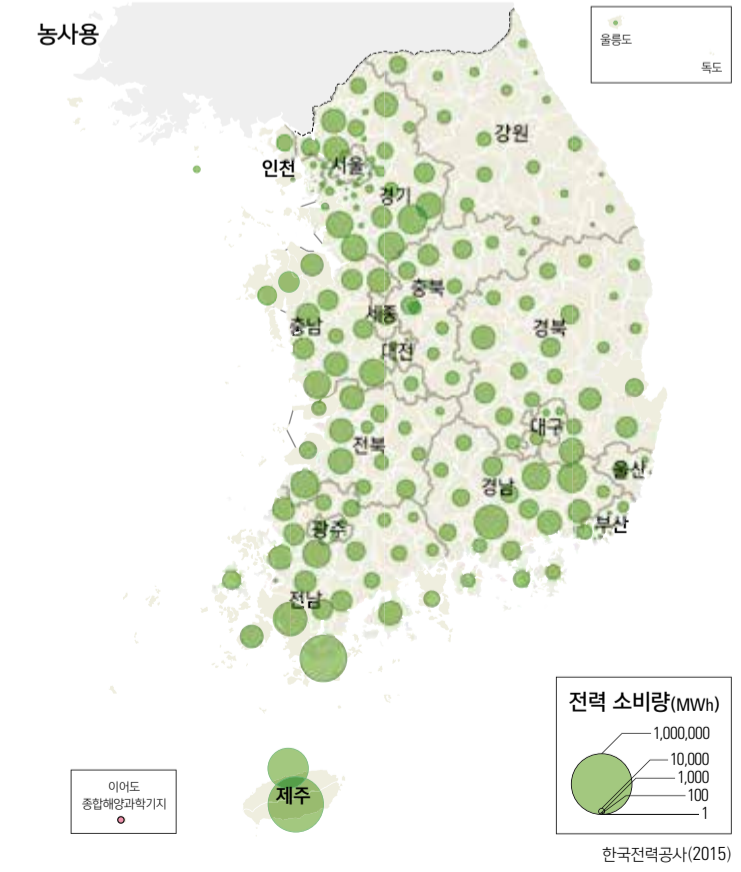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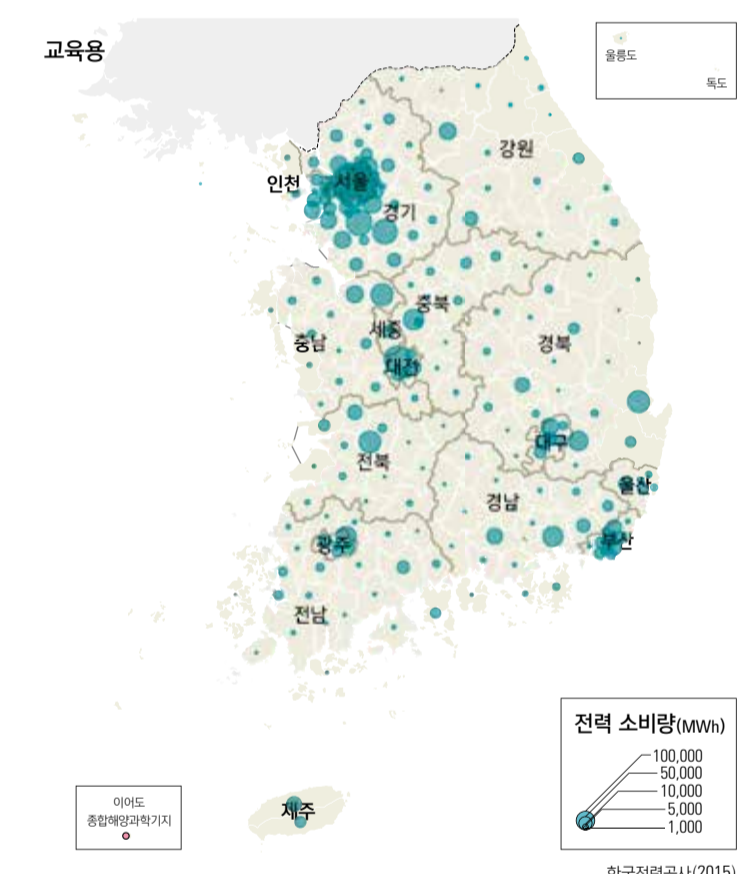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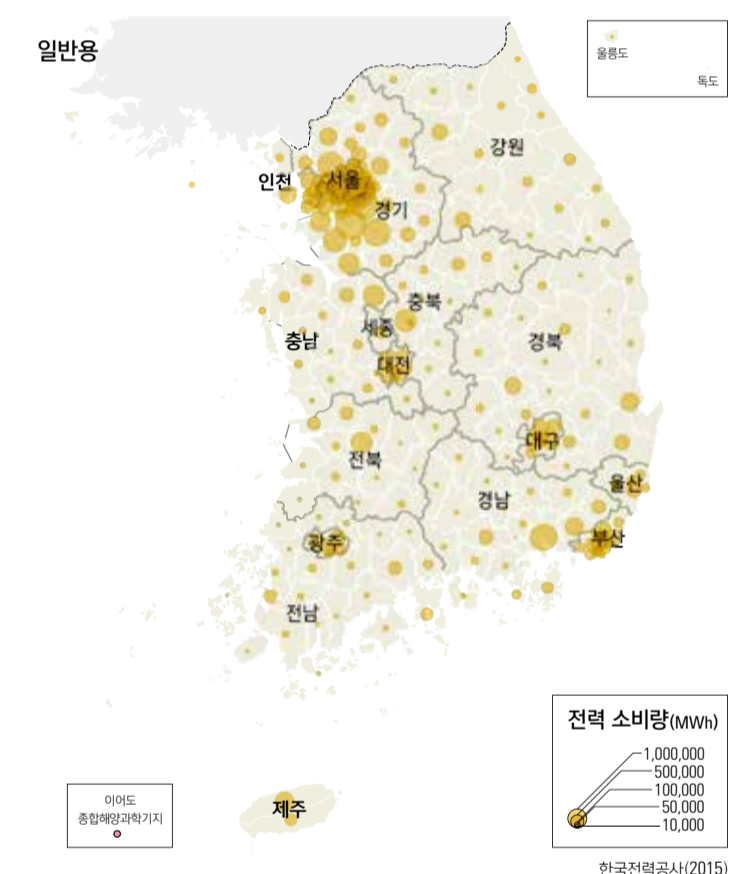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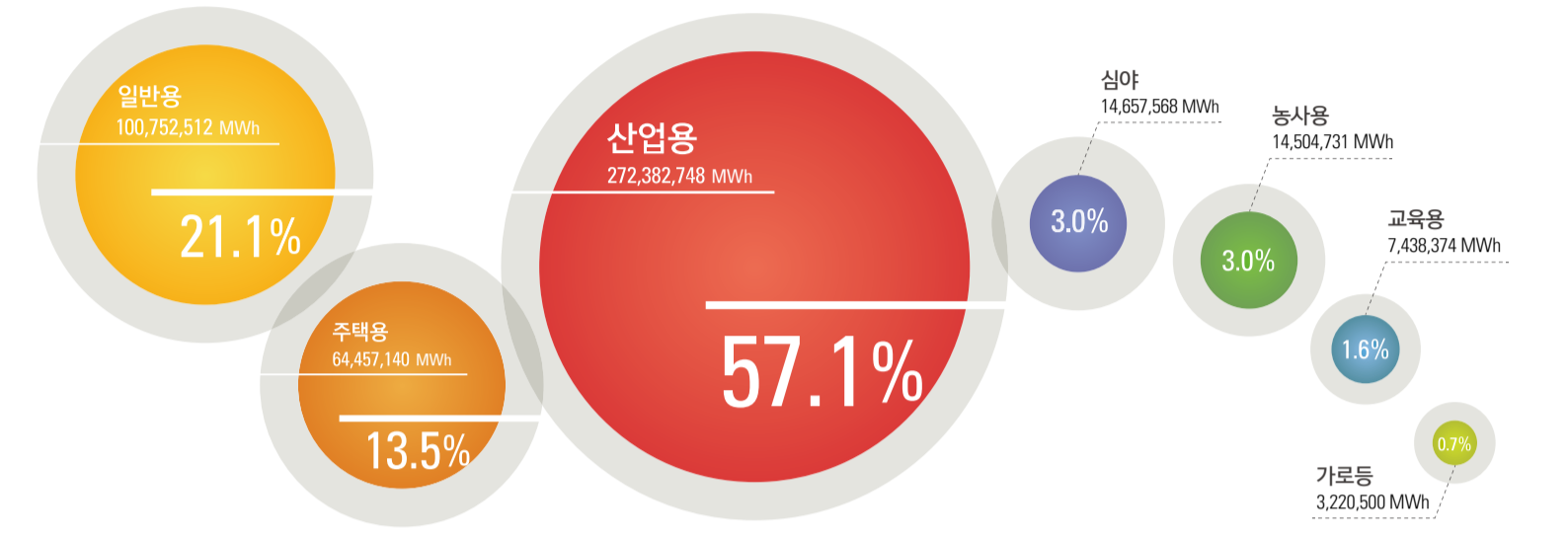
력의 경우 안전 문제로 인해 지반이 단단한 해안에, 수력은 수계를 따라 낙차와 유량이 많은 지역에 입지한다. 대체 에너지의 경우 바람이 많이 부는 강원도 및 제주도 등지의 해안 지역에서 발전량이 많으며, 집단 에너지는 수도권 등지의 온수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주택지 근처에 입지하고 있다.



종류별 전력 소비량(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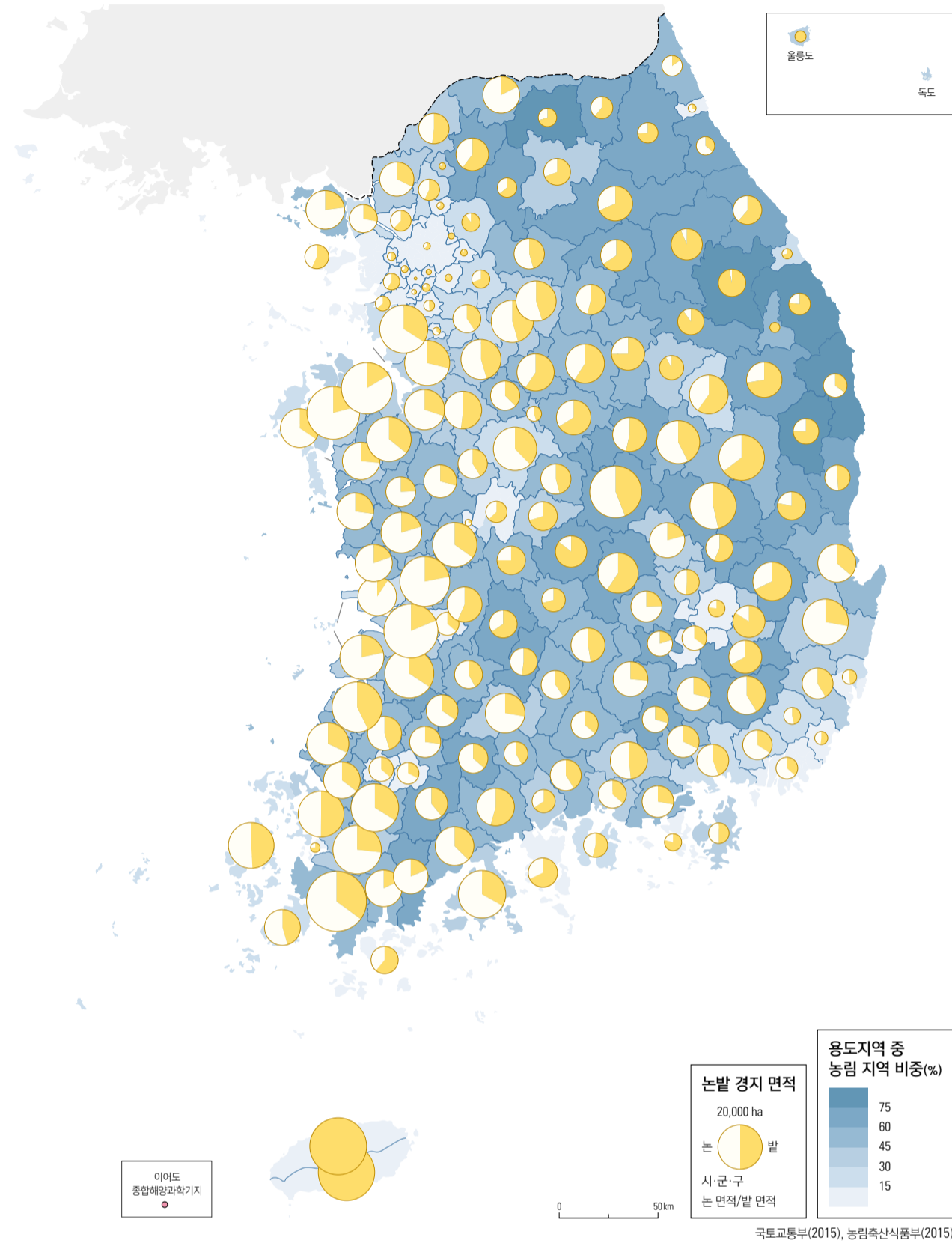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량은 2014년도 기준 약 480백만MWh로, 1961년 12백만MWh에 비해 약 400배 증가했다. 인구 1인당 전력 소비량 또한 1961년 46kWh에서 2014년 9,305kWh로 약 200배 증가했다. 전체 전력 소비를 한국전력공사 요금 부과 체계에 따라 분류해 보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272백만MWh로 전체 소비의 57.1%를 차지하며, 일반용 21.1%, 주택용 13.5%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



식량 자원

농림 지역 비율 및 경작지 면적(2014년)



종류별 식품 수급 현황(2013년)

구분	생산	수입	이입	총 공급량	이월	수출	사료	종자	손실	가공용(식용)	가공용(비식용)	식용 공급량	식품 자급률(%)
곡류	4,191	13,998	1,716	19,905	1,704	2	9,220	40	542	326	602	7,469	23.0
서류	1,089	49	-	1,138	-	-	109	61	109	-	-	859	95.7
설탕류	1,504	1	38	1,542	-	339	-	12	-	-	-	1,191	125.0
두류	147	1,238	58	1,443	69	0	-	4	8	848	-	513	10.7
견과류	71	73	-	144	-	13	-	3	-	-	-	127	54.3
종실류	39	109	9	156	8	1	-	-	1	122	-	25	26.2
채소류	9,455	1,211	2	10,668	9	125	-	53	2,397	-	-	8,063	89.8
과실류	2,523	717	-	3,240	-	35	-	-	320	5	-	2,880	78.7
육류	2,167	569	131	2,867	112	28	-	-	54	-	44	2,629	79.5
계란류	605	3	-	607	-	1	-	-	12	-	-	594	99.7
우유류	2,130	1,611	9	3,751	10	108	-	-	31	519	-	3,084	58.6
유지방	14	1,055	61	1,131	57	22	-	-	11	-	-	1,042	1.3
아래류	1,993	1,972	390	4,356	394	831	-	-	158	-	-	3,003	63.1
해조류	1,140	36	-	1,176	-	256	-	-	46	-	-	874	124.0
주류	4,329	350	686	5,365	696	264	-	-	9	247	-	4,149	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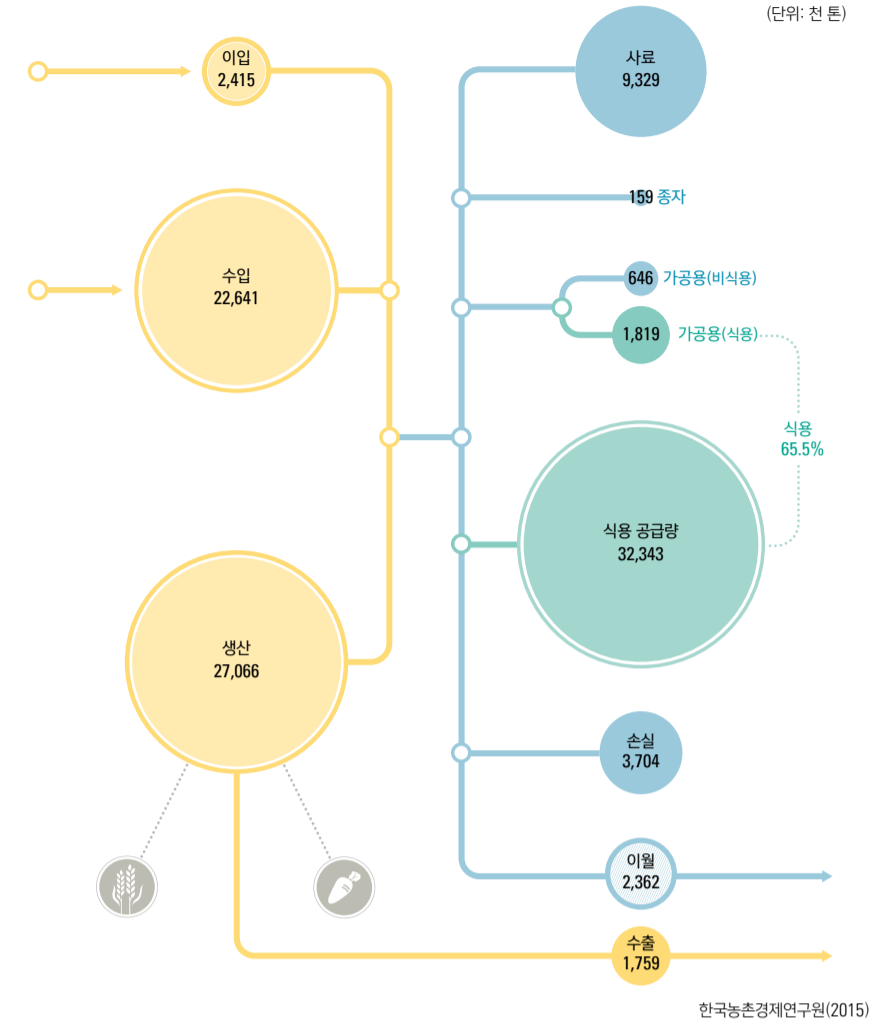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우리나라의 식량은 생산과 수입을 통해 공급된다. 2013년 식품 수급표를 기준으로 보면 연간 총식량 공급량 5천만 톤 중 생산을 통해 공급되는 양은 27백만 톤(54.5%), 수입되는 양은 23백만 톤(45.5%)이다. 공급된 식량 중 수출되거나 처리 과정에서 손

실된 양을 제외한 나머지가 국내 수요에 따라 사료용, 종자용, 가공용, 식용 공급량으로 배분된다. 전체 공급량 중 65.1%인 32백만 톤이 식용 공급량으로 공급되며, 18.8%가 사료용, 5.0%가 가공용으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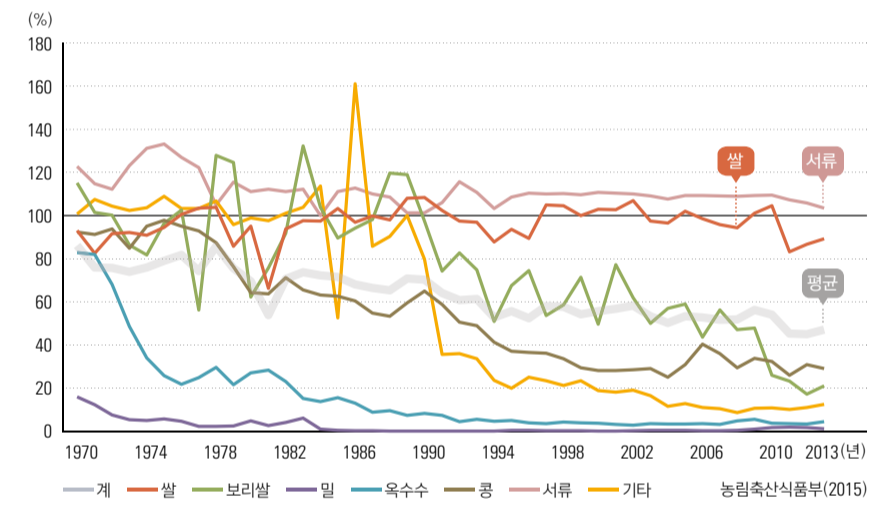
식량은 식량농업기구(FAO) 방식에 의거하여 곡류, 서류, 설탕류 등 총 15개로 분류된다. 식량 분류별 국내 공급량을 살펴보면, 곡류가 연간 19.9백만 톤, 채소류 10.7백만 톤, 주류 연간 5.4백만 톤 등의 순으로 많다. 반면, 식품 자급률(국내 생산/국내 소

식량 수급 현황(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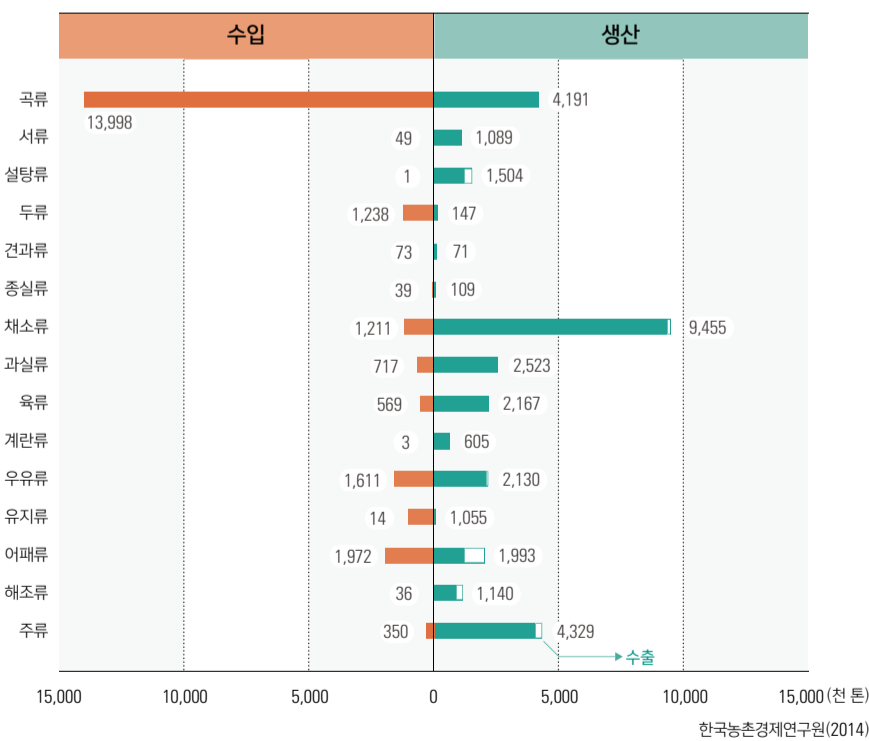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5)

농축산물 생산 및 소비 추이



종류별 수입량 및 생산량(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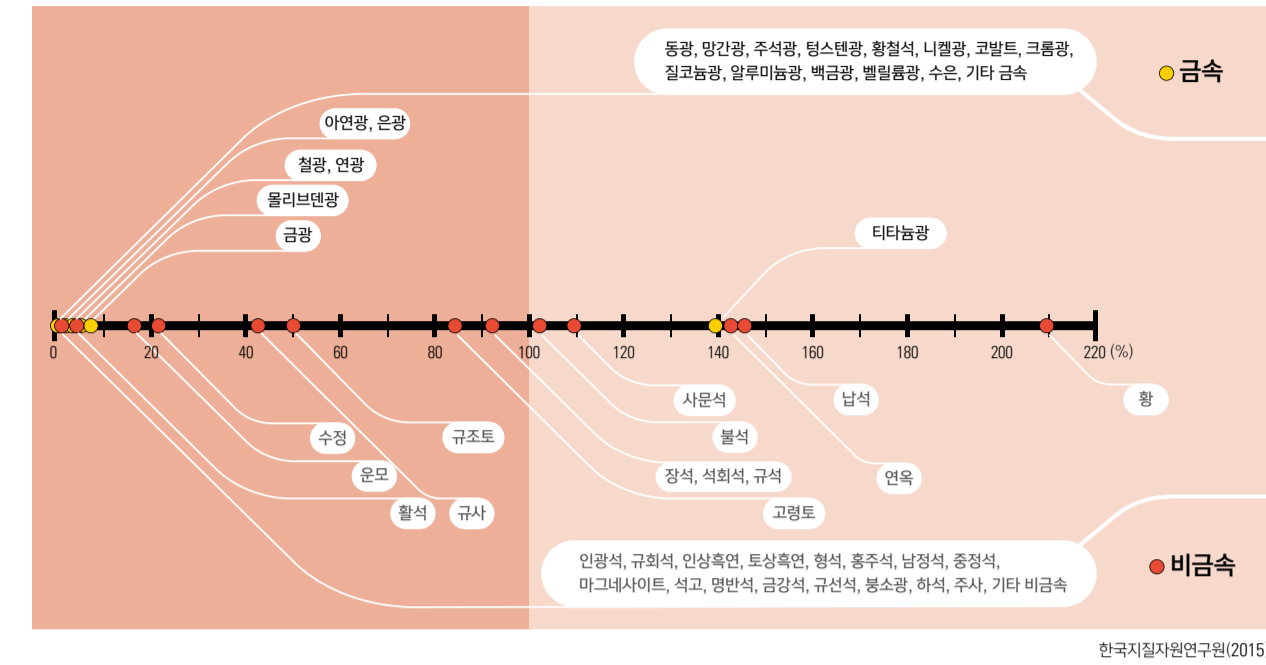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

비*100)의 경우, 설탕류(125.0%), 해조류(124.0%), 계란(99.7%)의 자급률이 높고, 공급량이 많은 곡류의 자급률은 23.0%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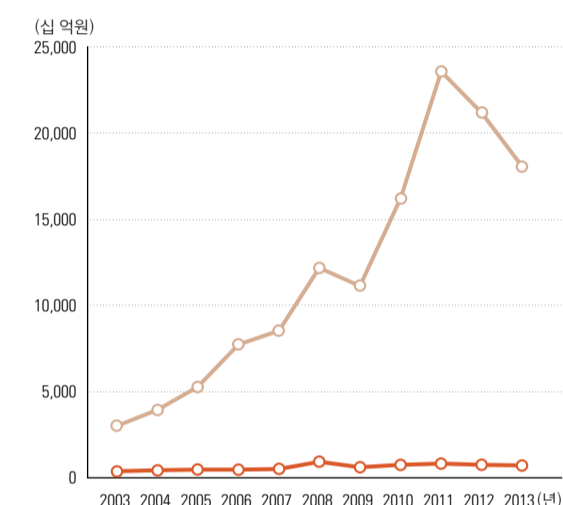
광물 자원

광물 자급률(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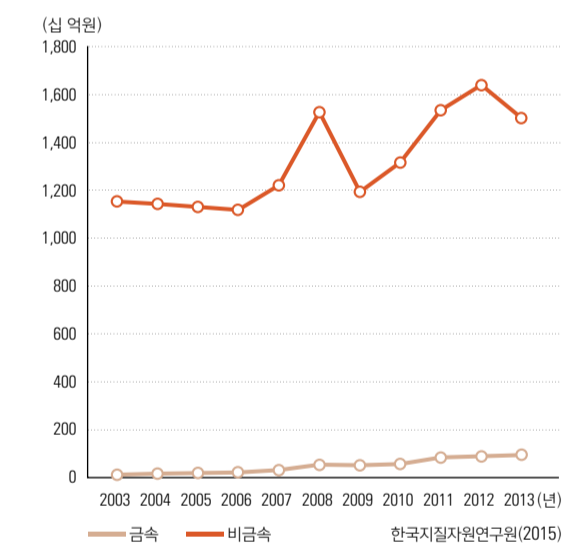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15)

광물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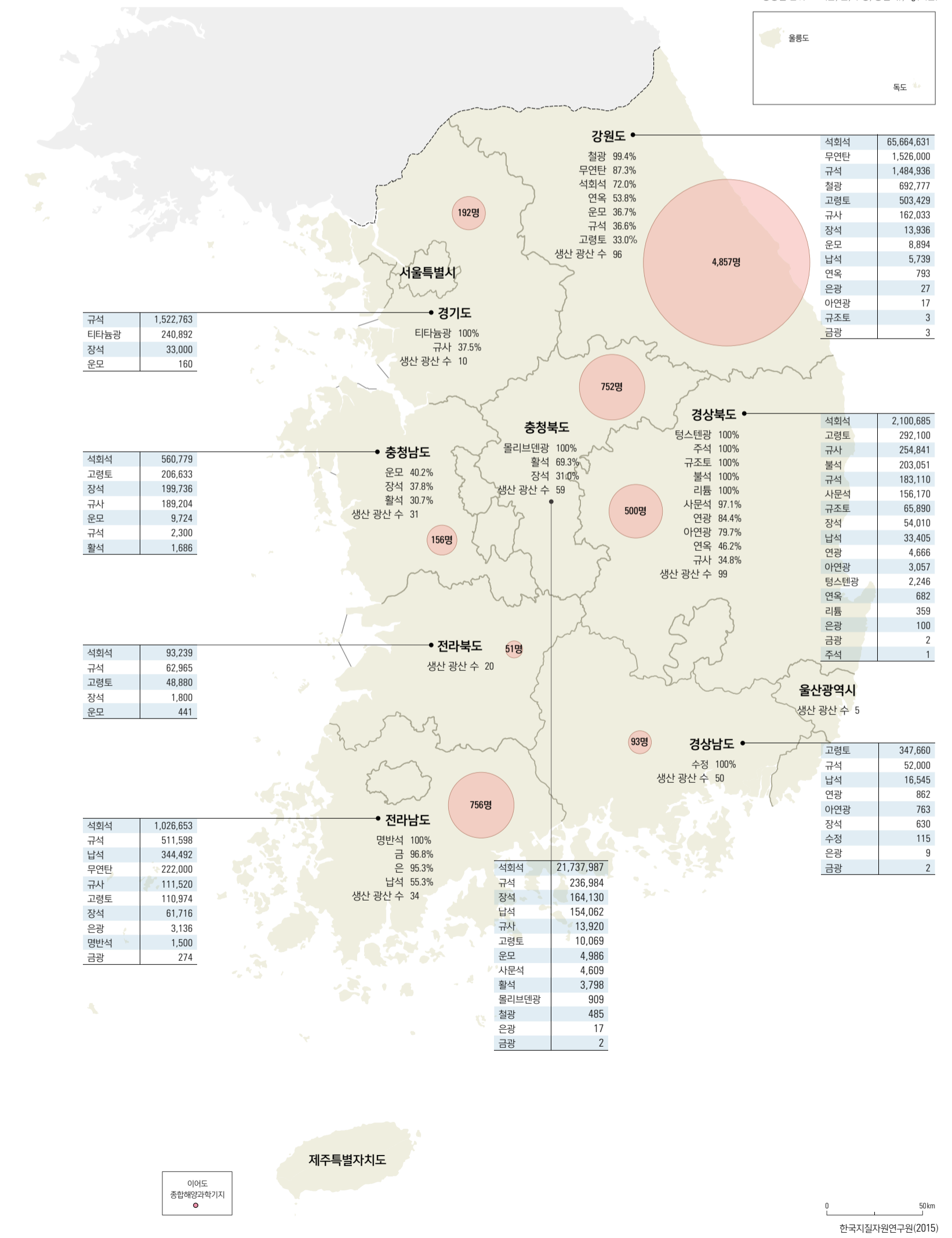
광물 생산액



우리나라 광업의 국내 총생산액은 2조 5,183억 원으로 산업 전체 국내 총생산액의 0.19%를 차지하며, 광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는 상당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광업은 크게 일반광, 석탄광, 원유 및 천연가스 세 종류로 분류되는데, 일반광의 자급률은 8.0%에 불과하다. 일반광 중 비금속광의 자급률은 72.8%에 이르고 있으나, 금속광의 자급률은 0.7%로 대부분 수입을 통해 수요를 충당한다. 석탄광의 자급률은 1.6%이다.

국가광물자원지리지정보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광산은 총 6,581곳이다. 광종별로는 석탄광이 1,255곳으로 가장 많고, 석회석광이 767곳, 규석광이 642곳, 금광이 566곳 등의 순으로 많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1,270곳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 1,138곳, 충청남도 984곳, 충청북도 943곳의 순으로 많다. 시·군·구별로는 충청남도 청양군이 249곳으로 가장 많고, 홍천군 217곳, 무주군 210곳 등의 순으로 많다. 그러나 이 중 2014년 현재 가동 중인 광산은 366곳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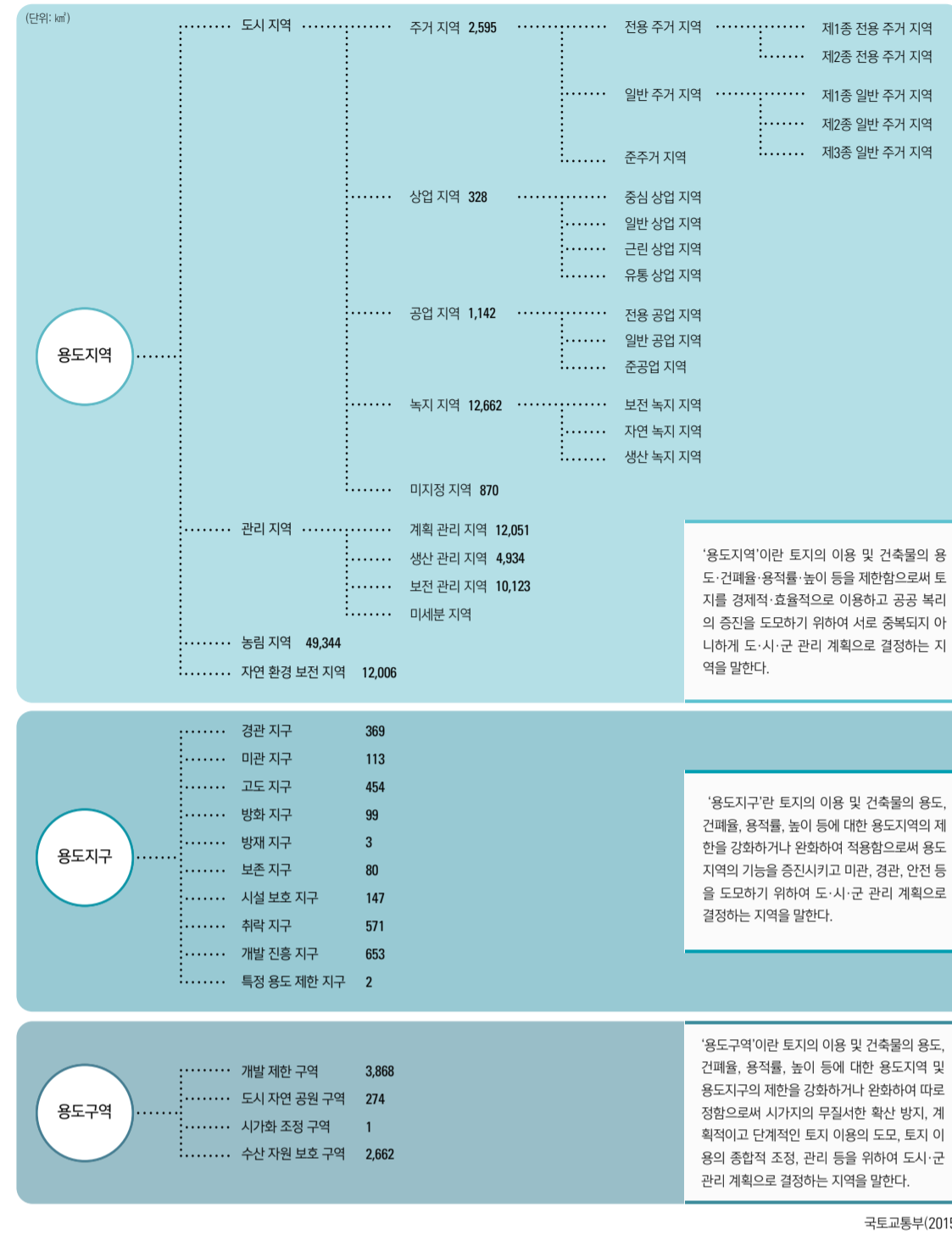
광산 규모(2014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15)

토지 이용 계획

법적인 국토 공간의 분류



시·도별 용도구역 현황(2014년)

시도	개발 제한 구역		시가지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서울특별시	18	149	0	-	0	-	0	-
부산광역시	6	253	0	-	0	-	0	-
대구광역시	6	401	0	-	0	-	7	43
인천광역시	6	88	0	-	0	-	20	22
광주광역시	5	247	0	-	0	-	0	-
대전광역시	5	305	1	984,005	0	-	9	17
울산광역시	5	269	0	-	0	-	3	7
세종특별자치시	1	41	0	-	0	-	0	-
경기도	21	1,175	0	-	3	24	34	41
강원도	0	-	0	-	14	110	7	6
충청북도	2	54	0	-	3	18	19	27
충청남도	3	25	0	-	7	173	33	20
전라북도	0	-	0	-	2	21	5	1
전라남도	4	271	0	-	15	1,169	24	42
경상북도	3	115	0	-	3	61	4	2
경상남도	5	464	0	-	32	1,098	10	46
제주특별자치도	0	-	0	-	0	-	14	6
계	90	3,860	1	984,005	79	2,673	189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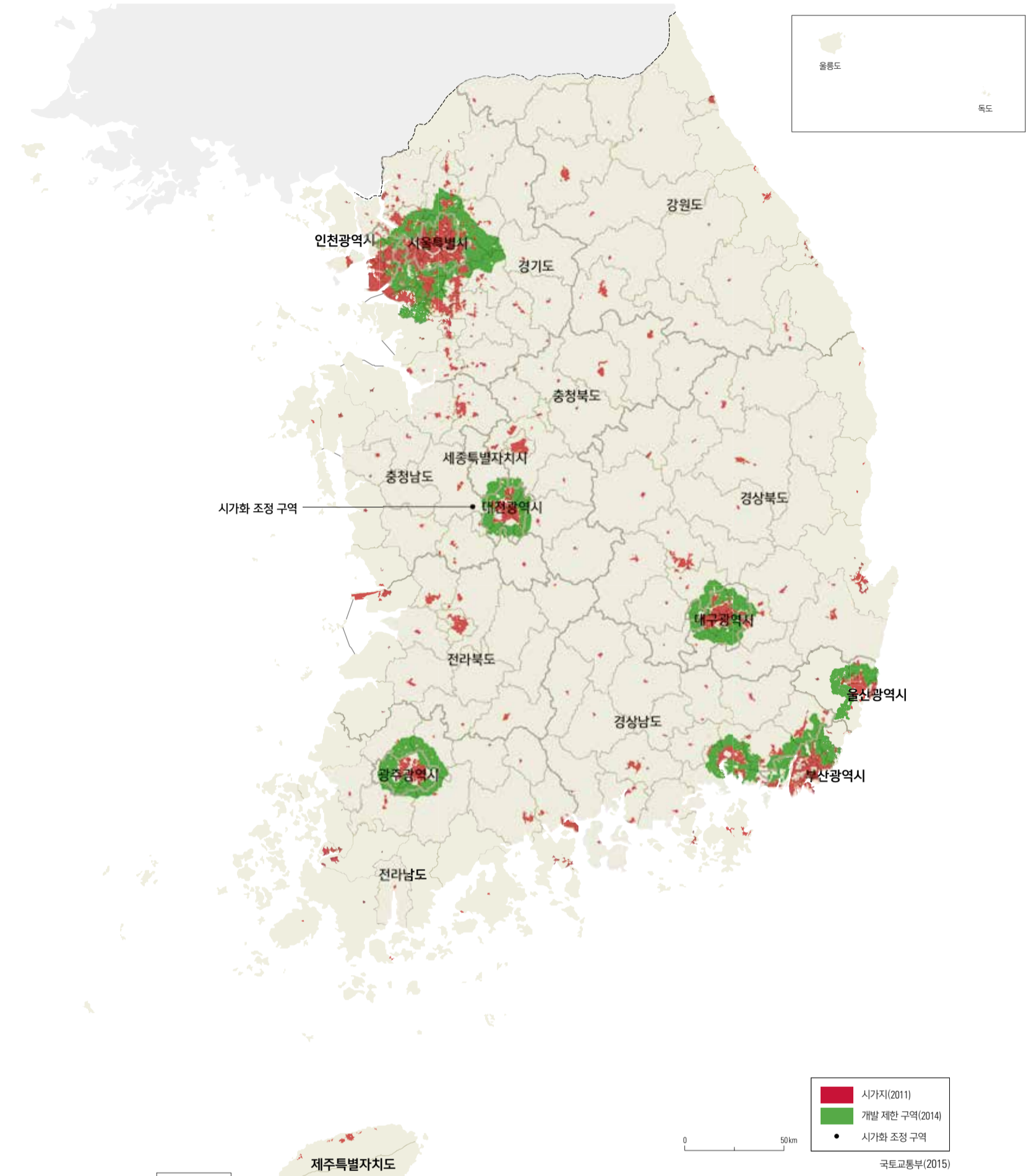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2014)

토지 이용 계획은 교통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 계획, 공원 녹지 계획과 더불어 국토 계획의 근간을 이룬다. 우리나라는 토지 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행정적 방안으로 용도지역 지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목적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규모 등을 규제하고 관리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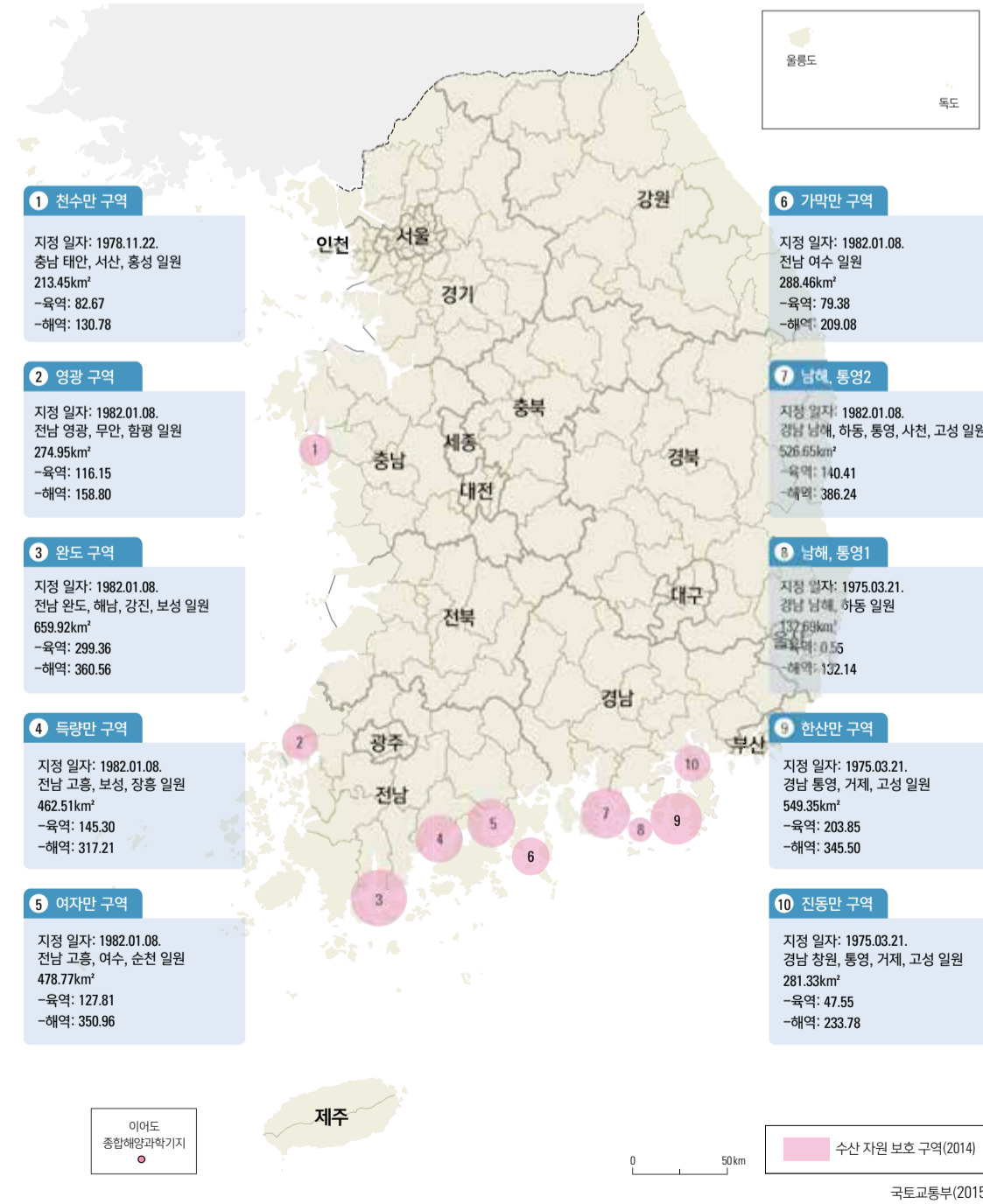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서 용도지역은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상업·시설·공장·학교 등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을 규제·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대·중·소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업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성된다.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세분되며, 관리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으로 세분된다. 우리나라 국토 중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은 육지부와 해면부를 포함하여, 2014년 기준 106,102백만㎡이다. 이 중 도시 지역은 17,597백 만㎡로 16.6%, 관리 지역 27,154백 만㎡로 25.6%, 농업 지역 49,344백만㎡로 46.5%, 자연 환경 보전 지역 12,006백만㎡로 11.3%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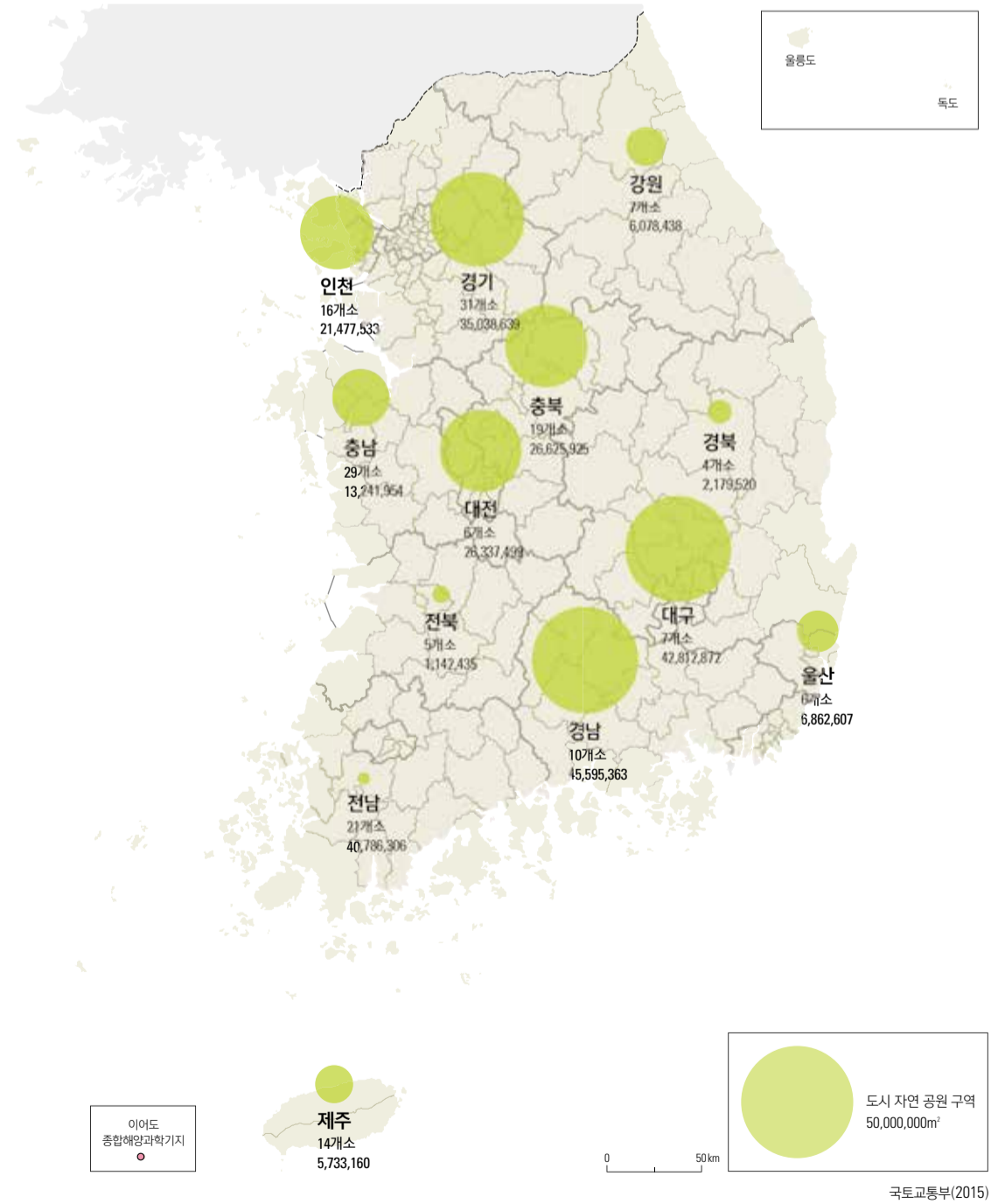
시가지와 개발 제한 구역(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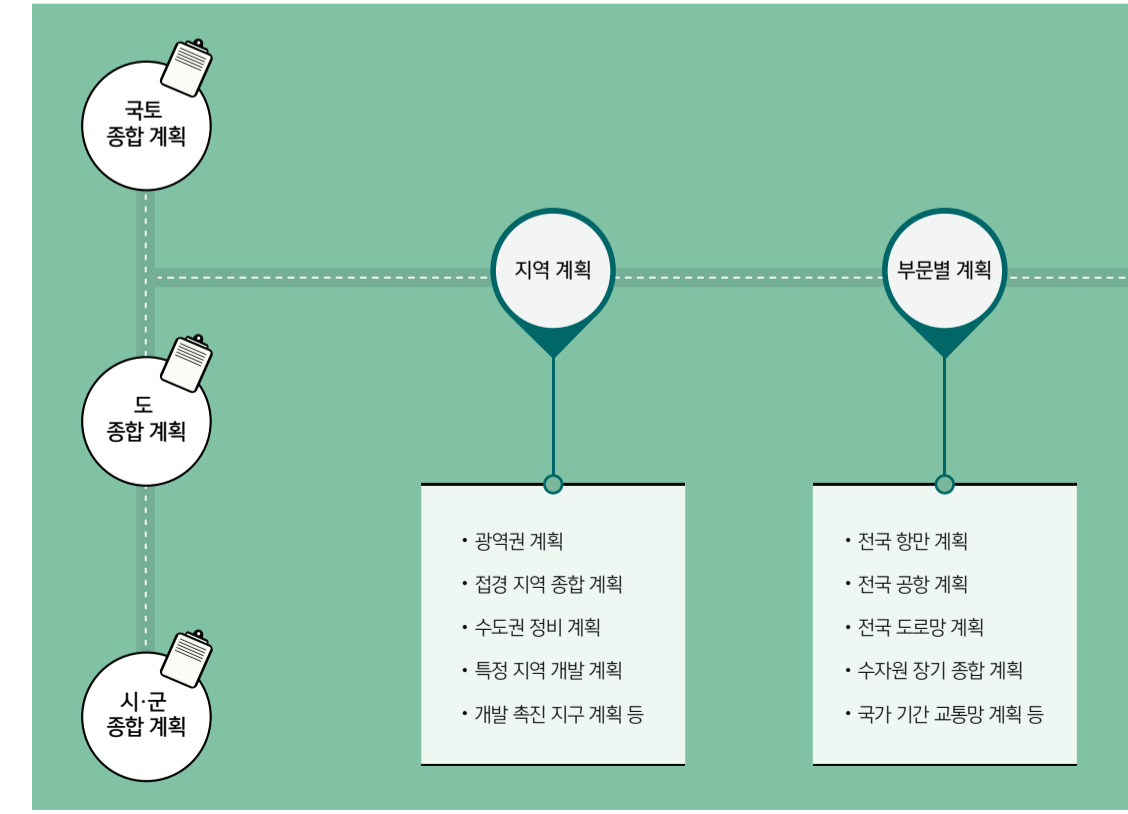
수산 자원 보호 구역(2014년)



도시 자연 공원 구역(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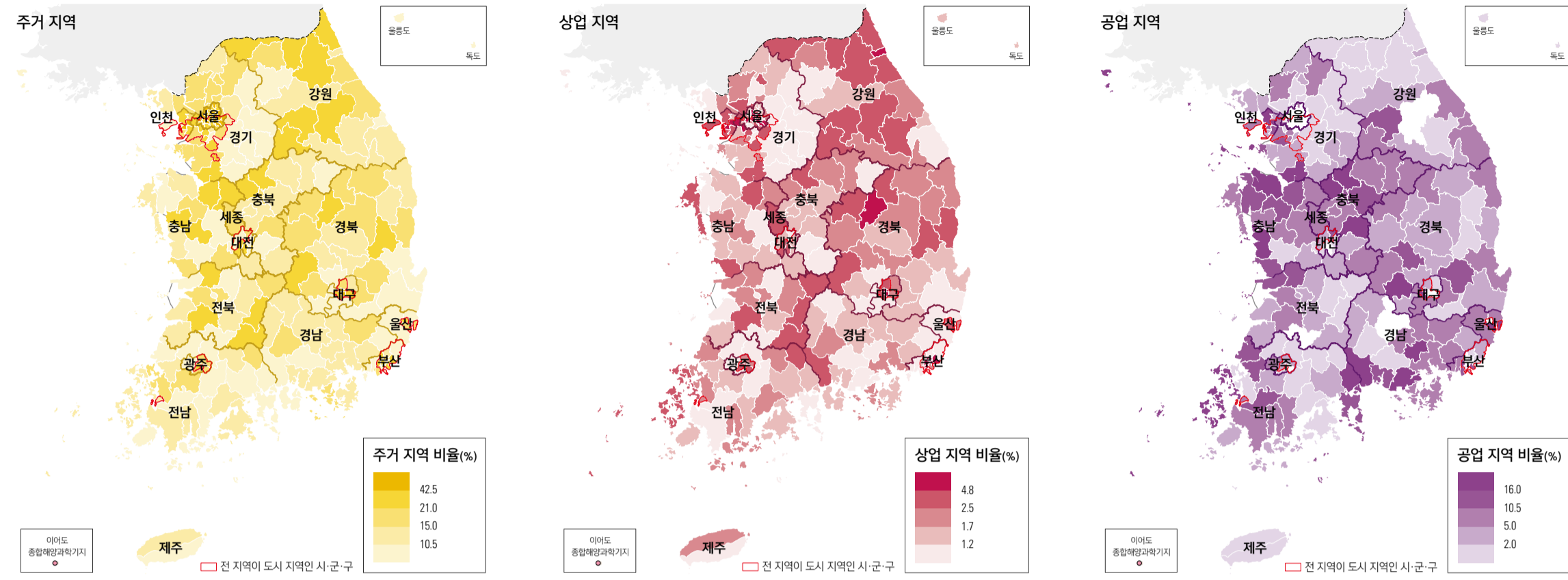
국토 공간의 법 체계(2014년)



연안 관련 법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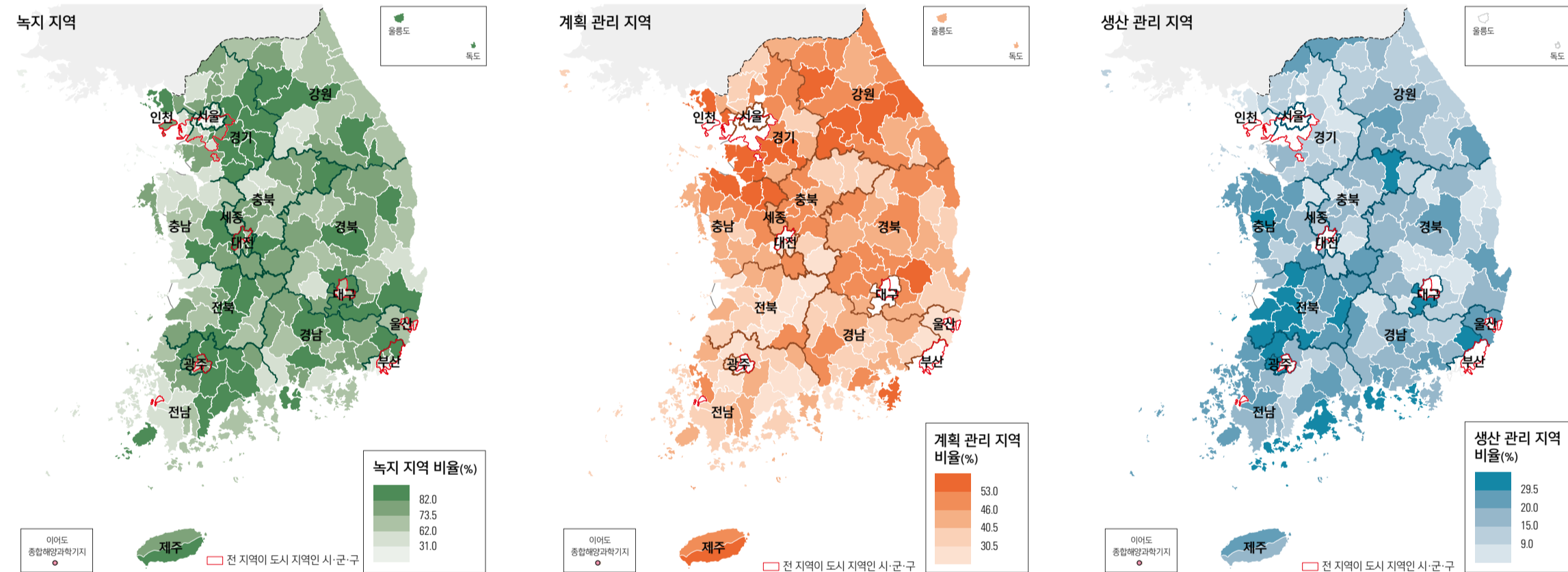
법률명	계획명	소관 부처	주기	주요 내용
국토 기본법	국토 종합 계획	국토교통부	20년	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 제시
연안 관리법	연안 통합 관리 계획	해양수산부	10년	연안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하기 위한 정책 방향 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교통부	-	광역 도시 계획,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
동·서·남·북 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2015.12.5)	동·서·남·북 해안 발전 종합 계획	국토교통부	-	동·서·남·북 해안권에 대한 종합적, 기본적인 계획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해양수산 발전 기본 계획	해양수산부	10년	해양 및 해양 자원의 보전, 개발 등 중장기 방향 설정
항만법	항만 기본 계획	해양수산부	10년	항만 지정 등 항만 개발 촉진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 방향
미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미리나 항만 기본 계획	해양수산부	10년	미리나 항만의 합리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이촌 어항법	이촌 어항 발전 기본 계획	해양수산부	5년	이촌 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관광 진흥법	관광 개발 기본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10년	관광 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 권역별 개발 기본 방향 제시
환경 정책 기본법	국가 환경 종합 계획	환경부	10년	국가 차원의 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 계획
자연 환경 보전법	자연 환경 보전 기본 계획	환경부	10년	전국의 자연 환경 보전에 대한 기본 계획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 생태계 보전 기본 계획	해양수산부	10년	해양 생태계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해양 환경 관리법	해양 환경 관리 종합 계획	해양수산부	5년	해양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 계획

용도지역 지정 현황(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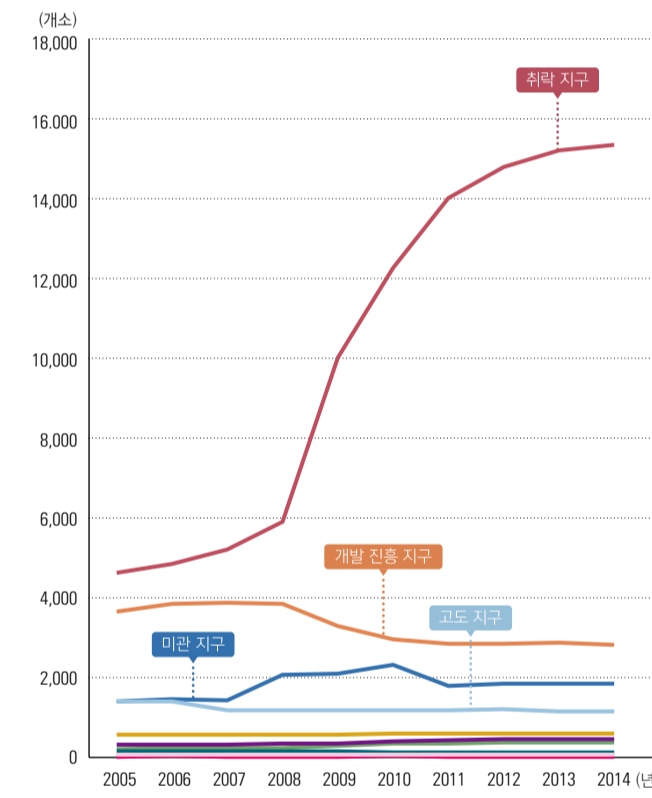


용도지구 현황(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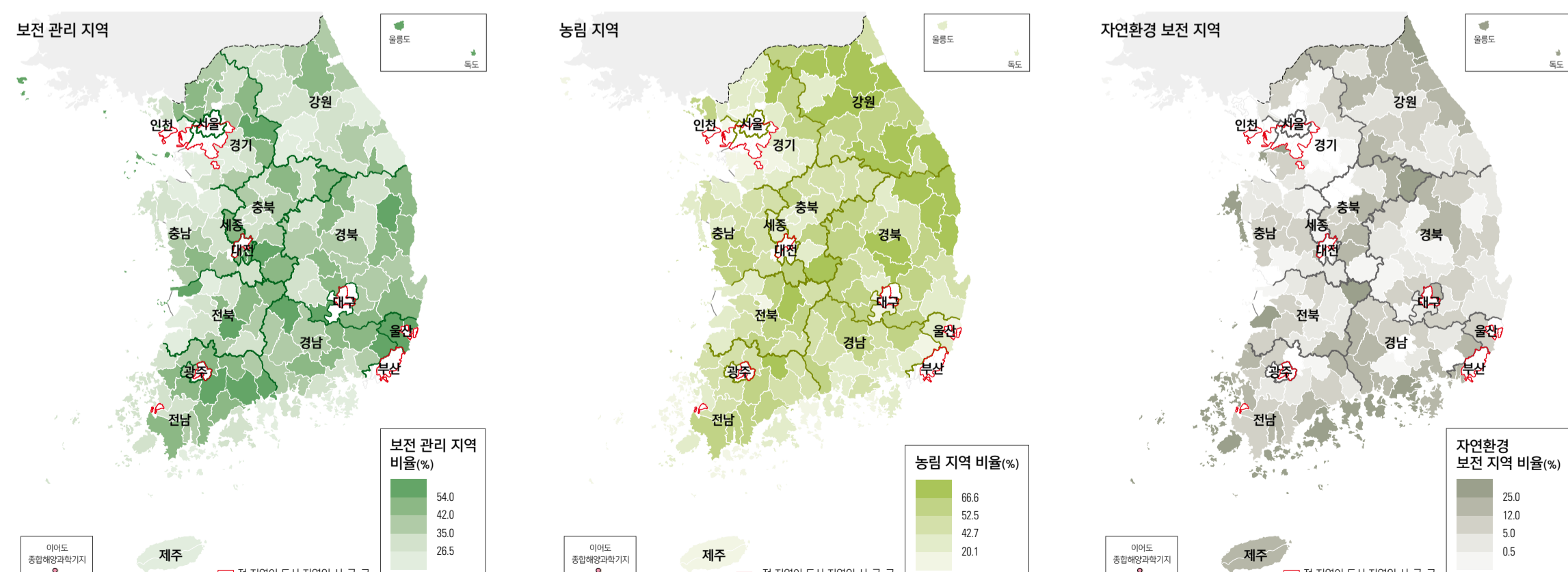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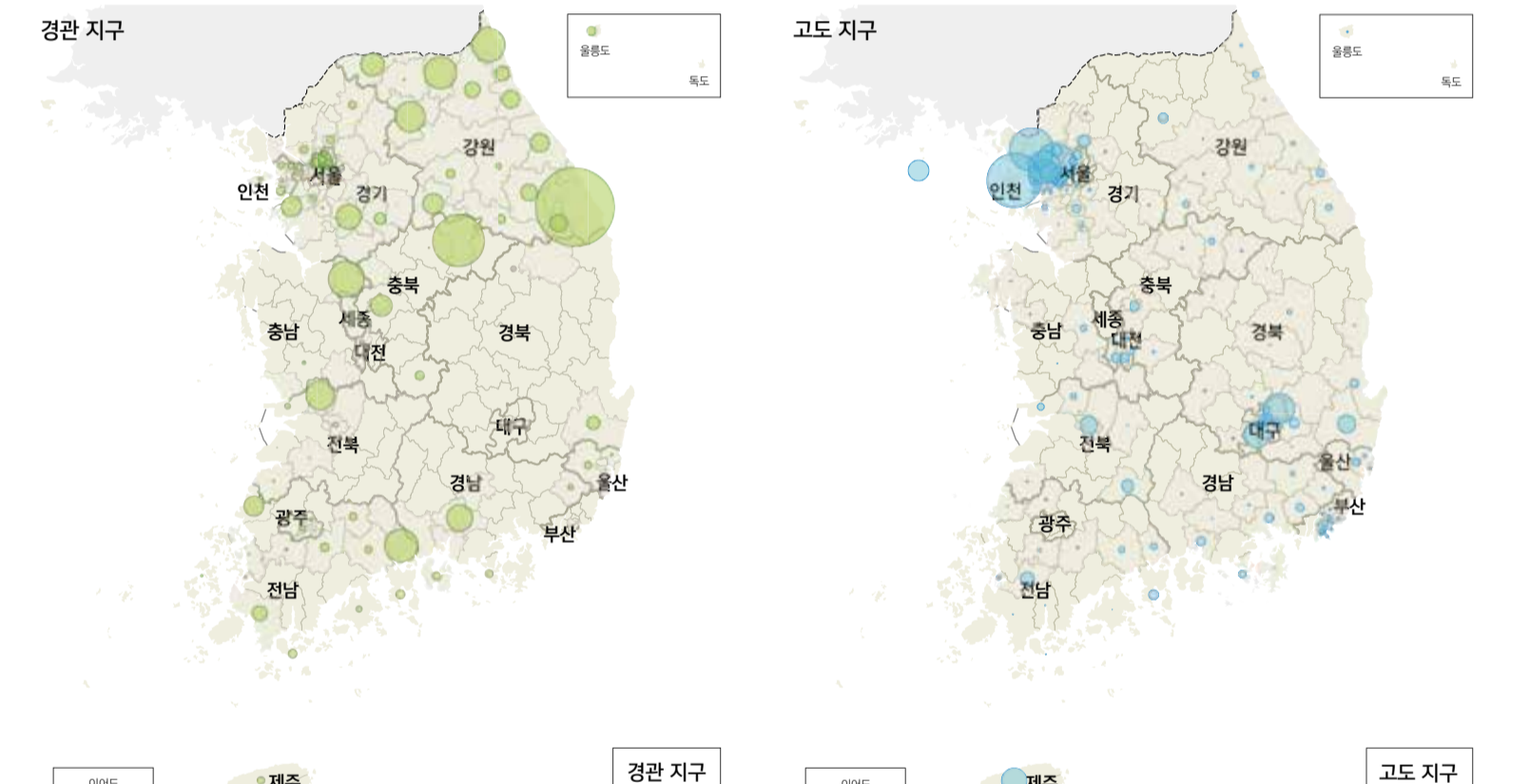
지구명	지정 목적	개소	면적(km ²)	지구명	지정 목적	개소	면적(km ²)
경관 지구	경관의 보호·형성	358	368.9	생태계 보존 지구	동식물 서식지 등 생태적 보존 가치 큰 지역의 보호·보존	149	34.5
자연 경관 지구	자연 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지 유지	203	232.1	시설 보호 지구	학교, 향민, 공공 시설, 공공 시설의 보호	118	147.3
수원 경관 지구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 경관을 보호·유지	123	127.0	학교 시설 보호 지구	학교의 교육 환경을 보호·유지	25	10.5
시가지 경관 지구	주거 지역의 양호한 환경 조성 및 시가지의 경관 보호	32	9.7	공용 시설 보호 지구	공용 시설을 보호하고 공공 업무 기능을 효율화	20	4.4
미관 지구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을 제한	1,846	113.1	향민 시설 보호 지구	향민 기능을 효율화하고 향민 시설의 관리·운영	66	33.1
중심 미관 지구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	540	28.7	공향 시설 보호 지구	공향 시설의 보호와 향공기의 안전 운항	7	99.3
역사 문화 미관 지구	문화재와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	138	26.6	취락 지구	농지 지역 등과 개발 제한 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	15,351	571.3
일반 미관 지구	중심 미관 및 역사 문화 미관 이외의 곳의 미관을 유지	1,168	57.9	자연 취락 지구	농지 지역 등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14,866	561.4
고도 지구	도시 토지의 고도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	1,129	454.2	집단 취락 지구	개발 제한 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485	10.0
최고 고도 지구	도시 환경과 경관 보호, 과밀 방지 위해 최고 한도 정함	205	22.4	개발 진흥 지구	주·상·공·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을 개발·정비	2,823	652.8
최저 고도 지구	토지 이용 고도화, 도시 경관 보호 위해 최저 한도 정함	924	431.8	주거 개발 진흥 지구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1,139	172.0
방화 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	581	99.4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	공업 및 유통, 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983	110.5
방재 지구	홍수에,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의 예방	13	3.0	관광 휴양 개발 진흥 지구	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539	313.9
시가지 방재 지구	건축물 인접 지역의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재해의 예방	13	3.0	유통 개발 진흥 지구	유통·물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11	1.2
보존 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	442	80.2	복합 개발 진흥 지구	복수 기능 개발·정비	24	20.2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보존	11	18.6	특정 개발 진흥 지구	기타 특정 목적 개발·정비	127	35.1
중요 시설물 보존 지구	국방상 또는 인보상의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보존	12	27.0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주거 기능, 청소년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	5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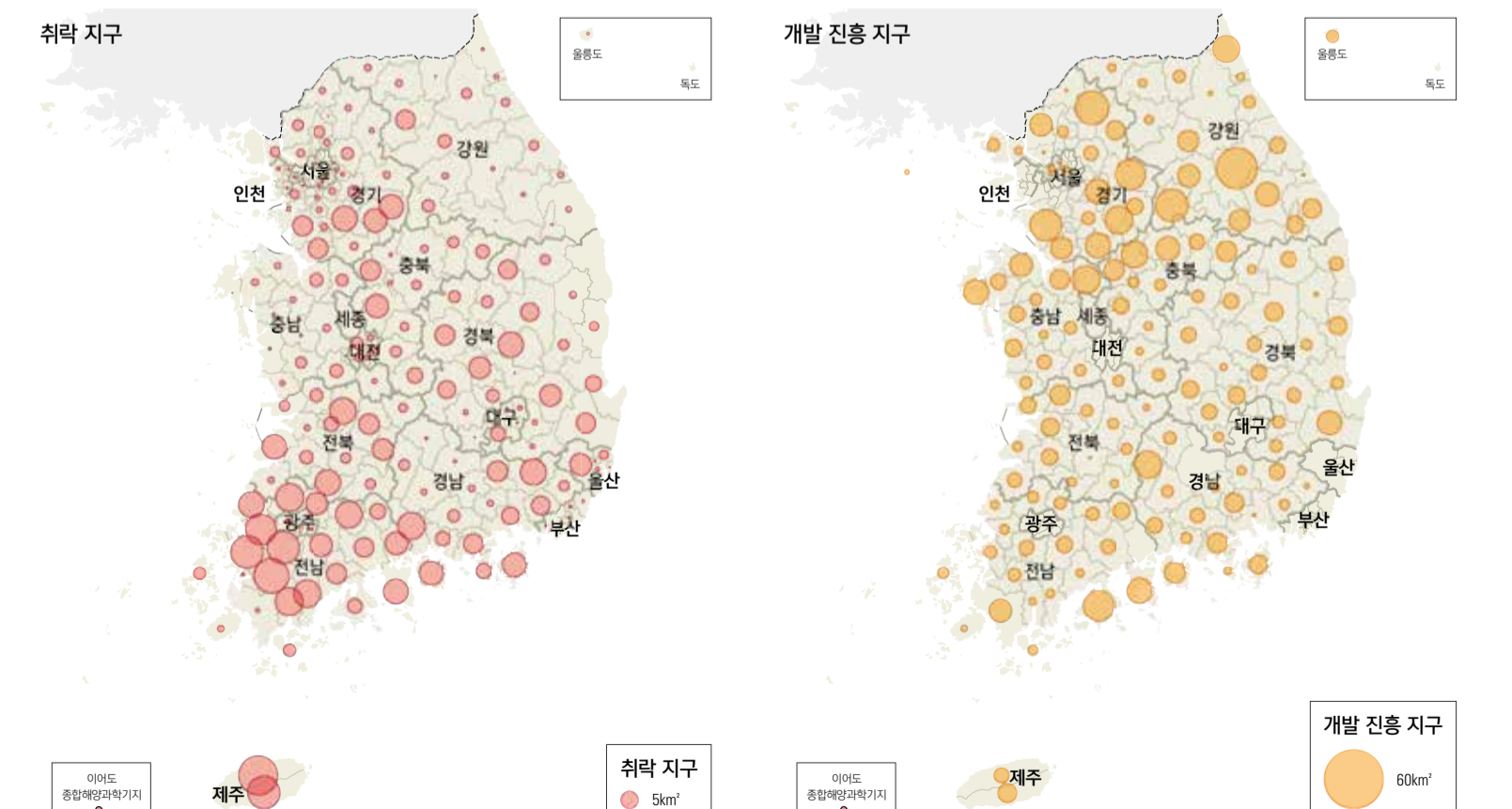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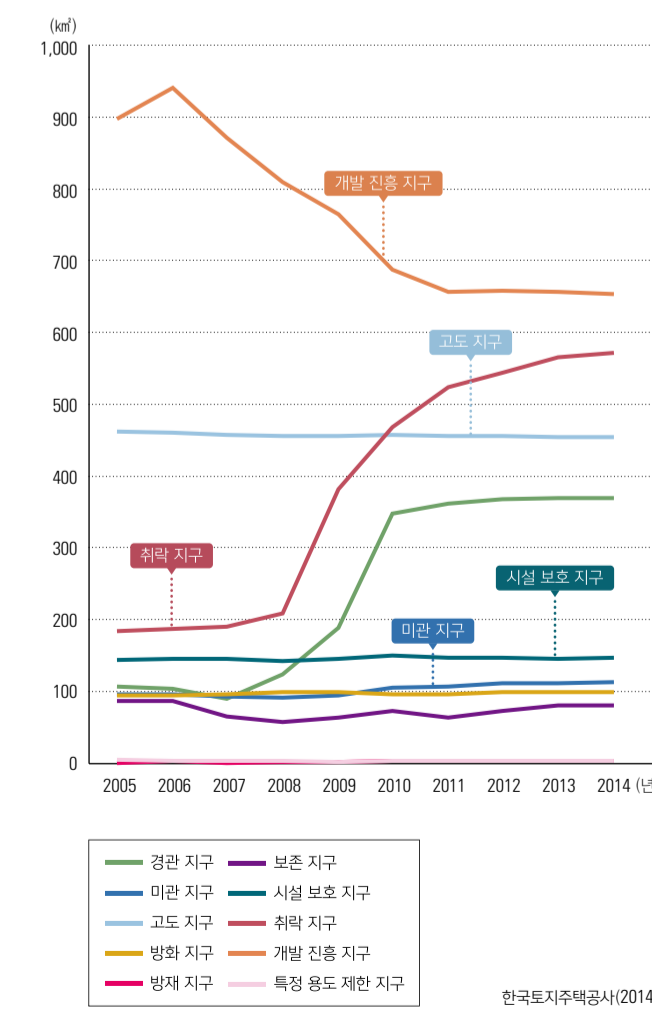
용도지구 개소 변화



시·군·구별 용도지구 면적(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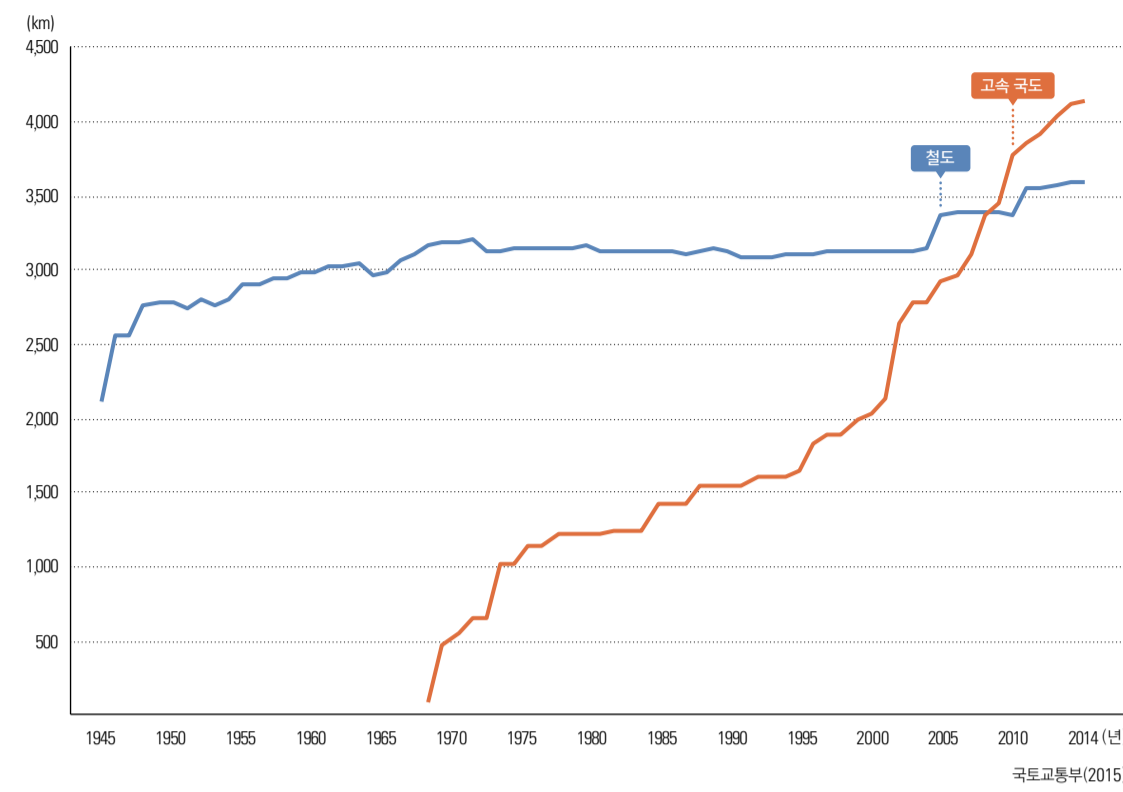


용도지구 면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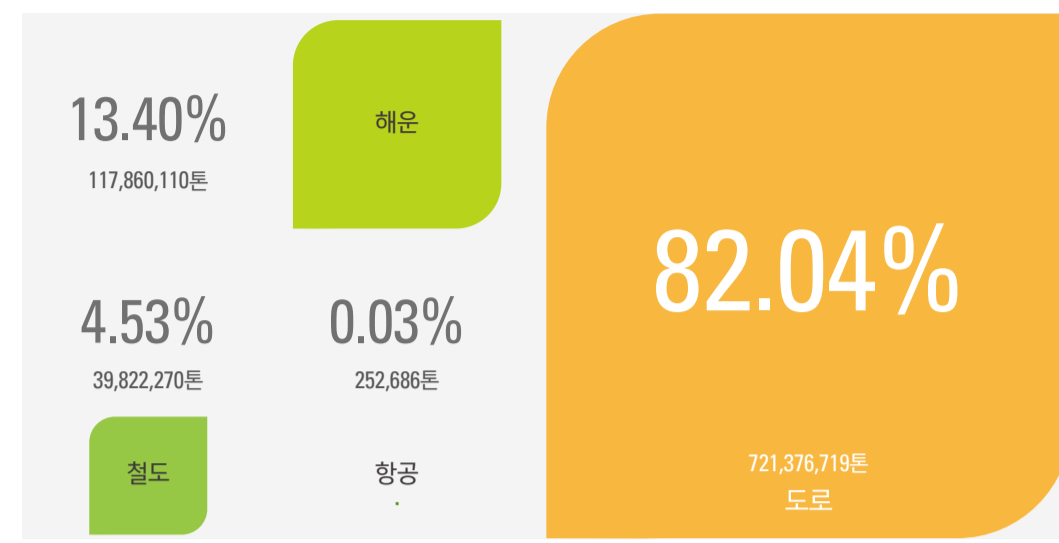


국가 교통망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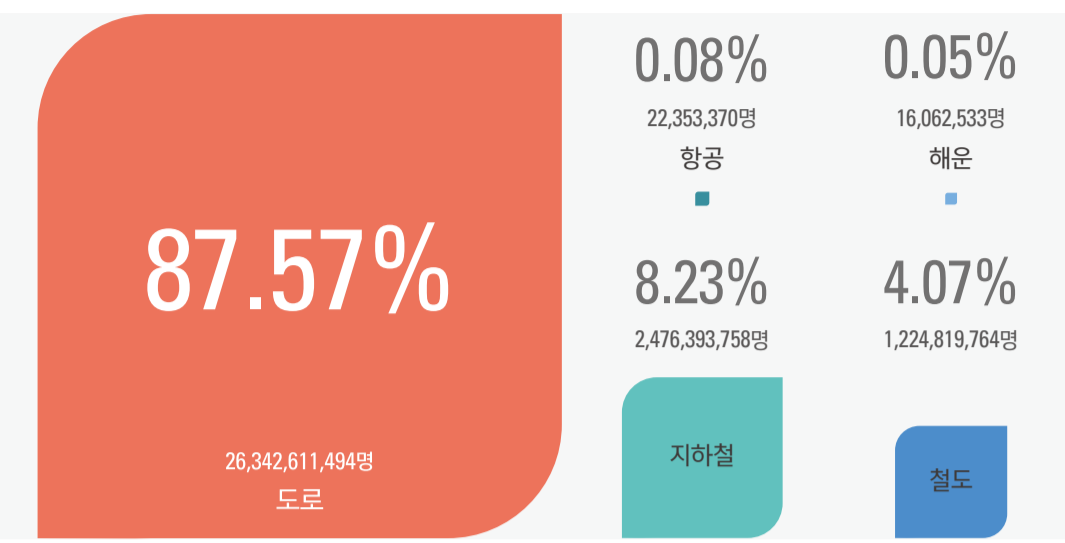
철도와 고속 국도의 총연장 변화



교통수단별 연간 화물 운송 실적(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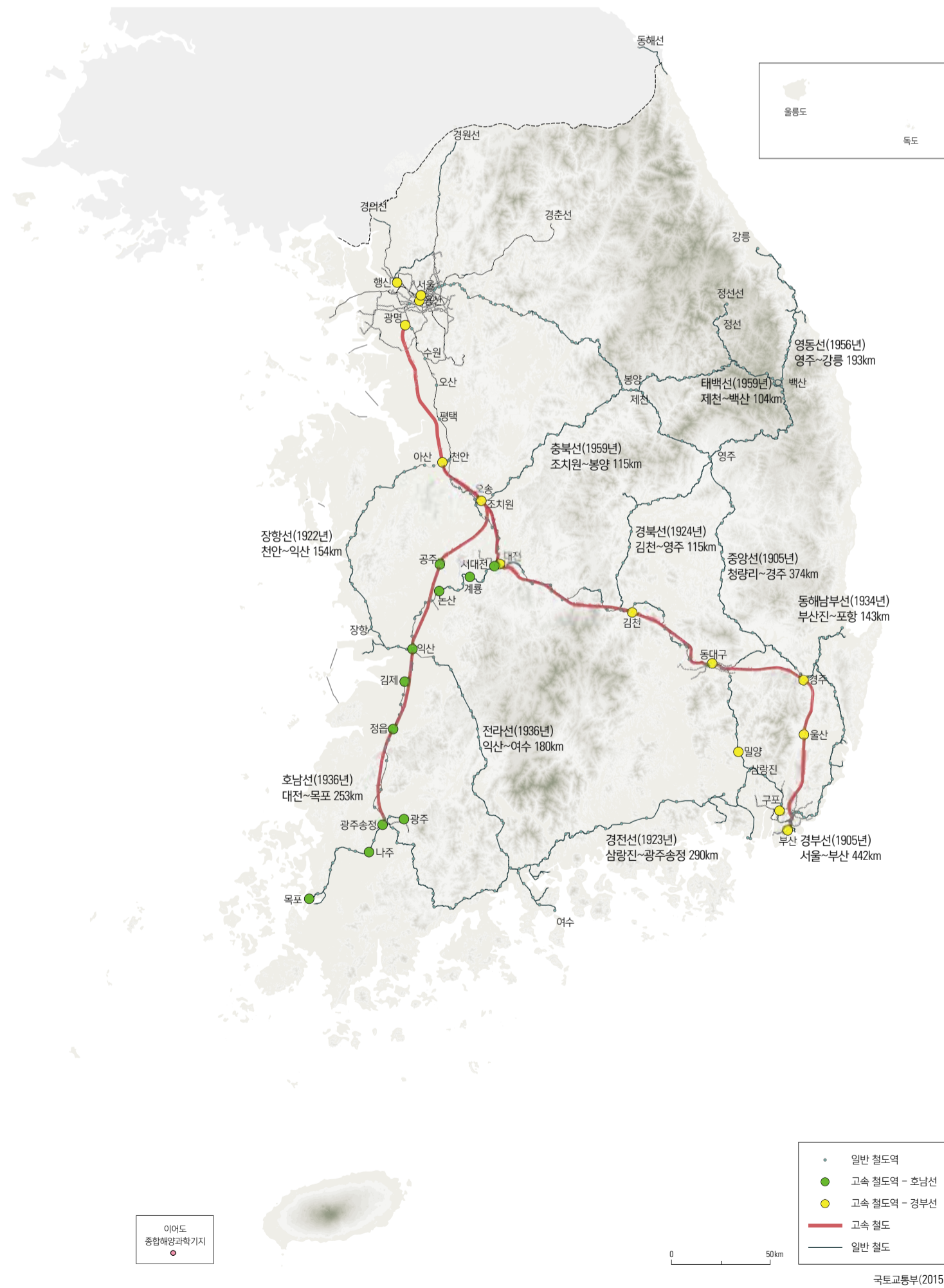
교통수단별 연간 여객 운송 실적(2013년)



고속 국도 노선 현황(2014년)

노선 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연장 (km)	노선 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연장 (km)
33개 노선				4,138.76	60	서울양양선	서울 강릉구	강원 춘천군	78.50
1	경부선	부산 금정구	서울 서초구	416.05	65	동해선	부산 해운대구	강원 속초시	132.28
10	남해선	전남 영암군	부산 북구	273.20	100	서울의령·순환선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128.02
12	88올림픽선	전남 무안군	대구 달성군	223.22	102	남해제1지선	경남 함안군	경남 창원시	17.88
15	서해안선	전남 무안군	서울 금천구	336.65	104	남해제2지선	경남 김해시	부산 사상구	20.60
16	울산선	울산 울주군	울산 남구	14.30	110	제2경안선	인천 중구	경기 안양시	48.06
17	평택화성선	경기 평택시	경기 화성시	26.69	120	경안선	인천 남구	서울 양천구	23.89
20	익산포항선	전북 익산시	경북 포항시	130.35	130	인천국제공항선	인천 중구	경기 고양시	36.55
25	호남선	전남 순천시	충남 천안시	276.26	151	서천공항선	충남 서천군	충남 공주시	61.36
27	순천완주선	전북 남원시	전북 완주군	117.78	153	평택시흥선	경기 평택시	경기 시흥시	40.30
30	당진상주선	충남 당진시	경북 상주시	171.00	171	용인서울선	경기 오산시	서울 강남구	25.45
35	중부선	경남 통영시	경기 하남시	332.48	251	호남선지선	충남 논산시	대전 대덕구	53.97
37	제2경부선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31.08	253	고창담양선	전남 고창군	전남 담양군	42.50
40	평택제천선	경기 평택시	충북 제천시	103.19	300	대전남부 순환선	대전 유성구	대전 동구	13.28
45	중부내륙선	경남 창원시	경기 양평군	302.03	400	수도권 제2순환선	경기 화성시	경기 화성시	9.26
50	양동선	인천 남동구	강원 강릉시	234.40	451	중부내륙지선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30.00
55	중앙선	부산 사상구	강원 춘천시	370.76	551	중앙선지선	경남 창원시	경남 양산시	1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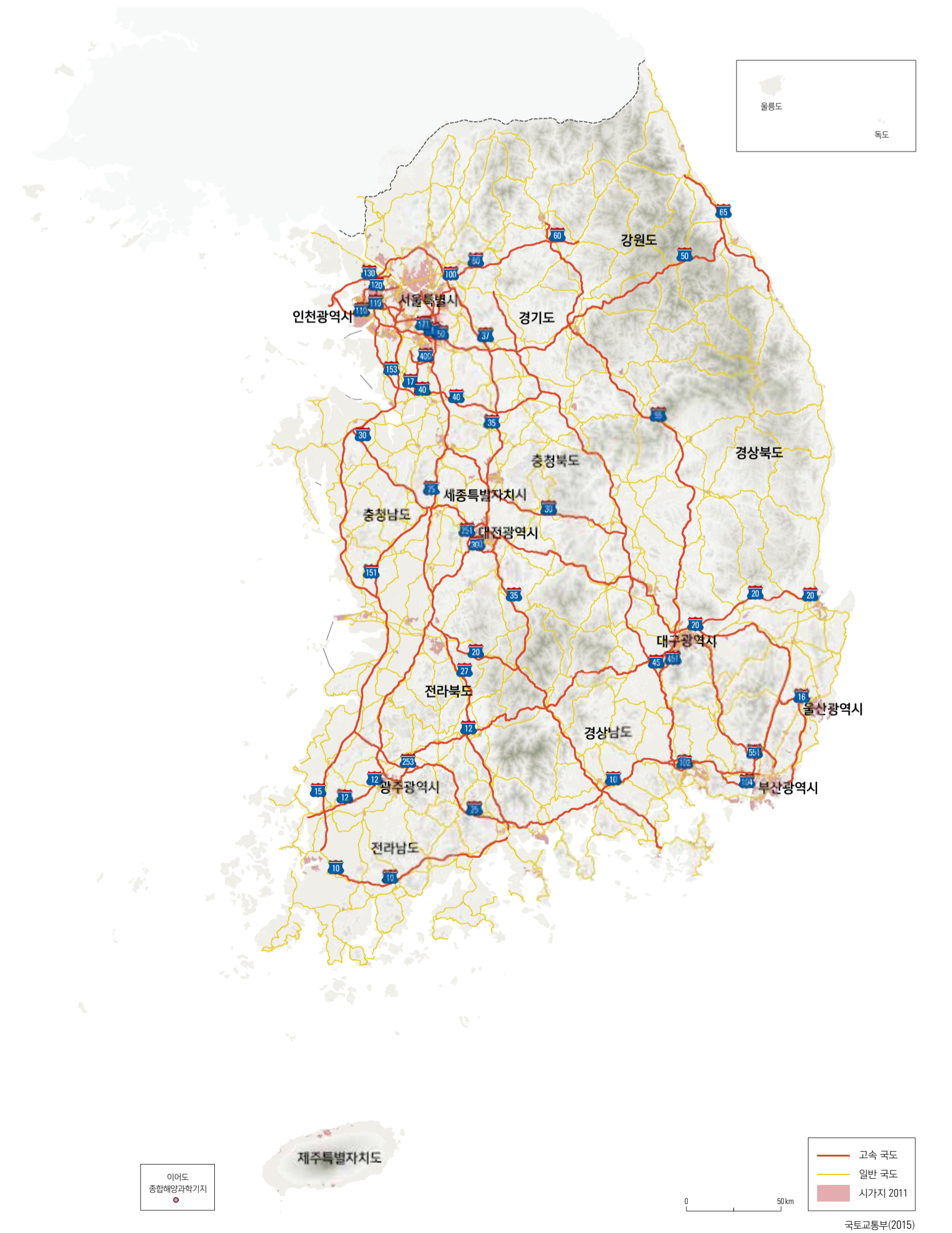
철도 교통망(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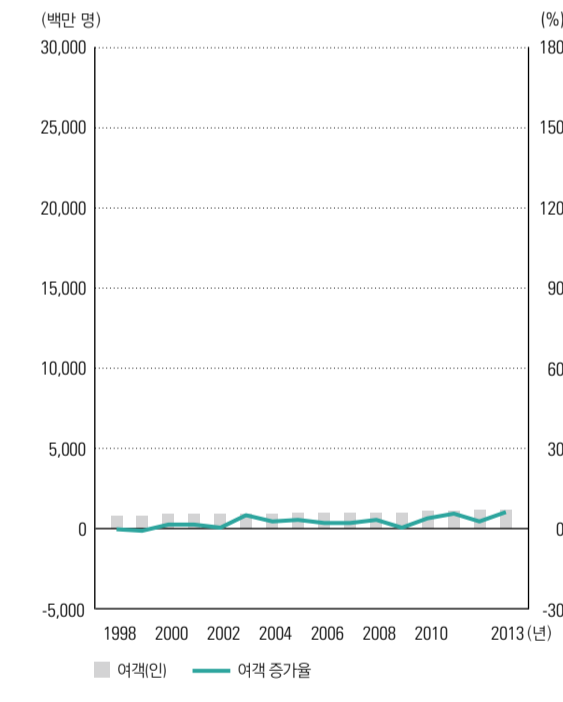
1960년대부터 본격 추진된 공업화와 이에 따른 산업의 발전으로 우리나라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시설 등 국가 교통망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1970년 10%에 불과했던 도로 포장률은 2014년 현재 92%에 달하며, 도로의 총연장은 2014년 현재 97,920km로 25배 넘게 증가하였다. 특히 고속 국도는, 1970년 550km에서 2014년 현재 4,139km로 늘어 국토의 많은 물동량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철도의 총연장은 1945년 2,114.2km에서 2014년 현재 3,590.3km로 약 1.7배 늘어나 비교적 안정된 증가율을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간선 노선이 일제 강점기에 생겨났으며, 1970년대 교통에 대한 투자가 철도 증설보다는 도로망이나 항만 시설의 확충

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그러나 차량과 선로 개선에 따라 열차의 운행 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04년 한국고속철도(KTX)의 개통으로 서울-부산을 2시간 18분에 주파할 수 있게 되었고, 2015년에는 호남고속철도 전용 노선이 건설되었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객 및 화물 수송에 있어 도로는 80% 이상의 압도적인 분담률을 갖는다. 반면, 철도의 여객 수송량은 지난 15년 간의 변화가 없었다. 화물 수송량도 도로와 철도에서 변화율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도로를 이용한 수송량은 1998년과 비교해 절대량이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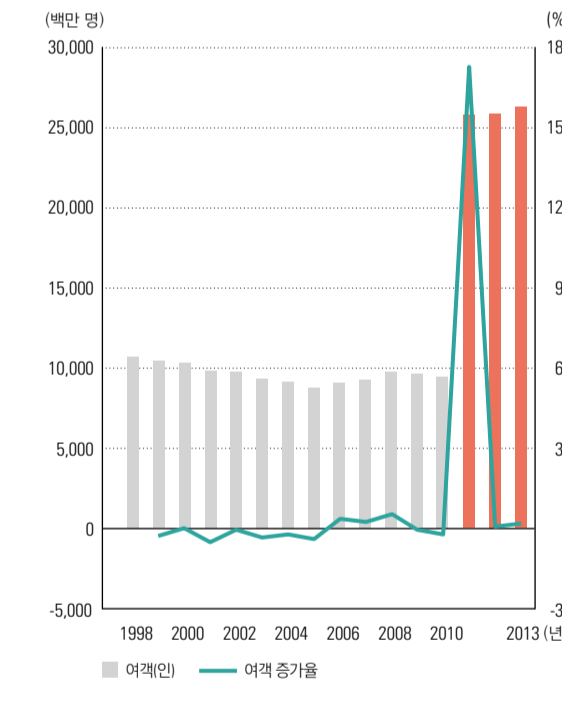
도로 교통망(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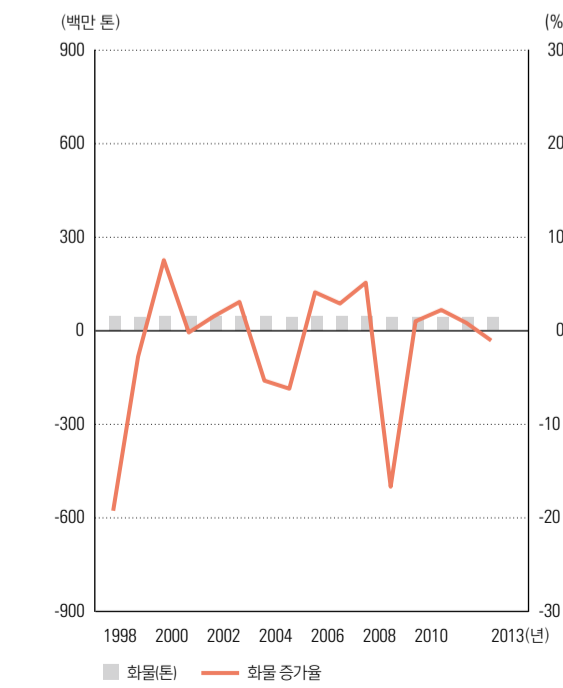
철도-여객(1988 -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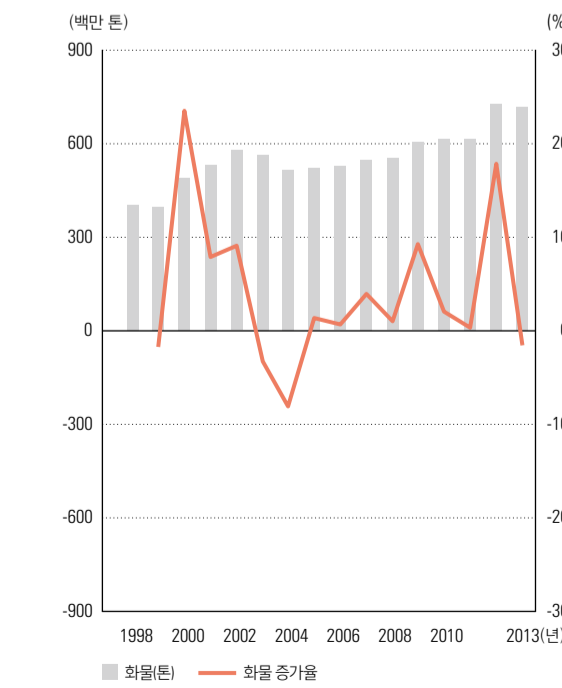
도로-여객(1988 - 2013년)



철도-화물(1988 - 2013년)



도로-화물(1988 - 2013년)



내륙 및 연안 교통 체계(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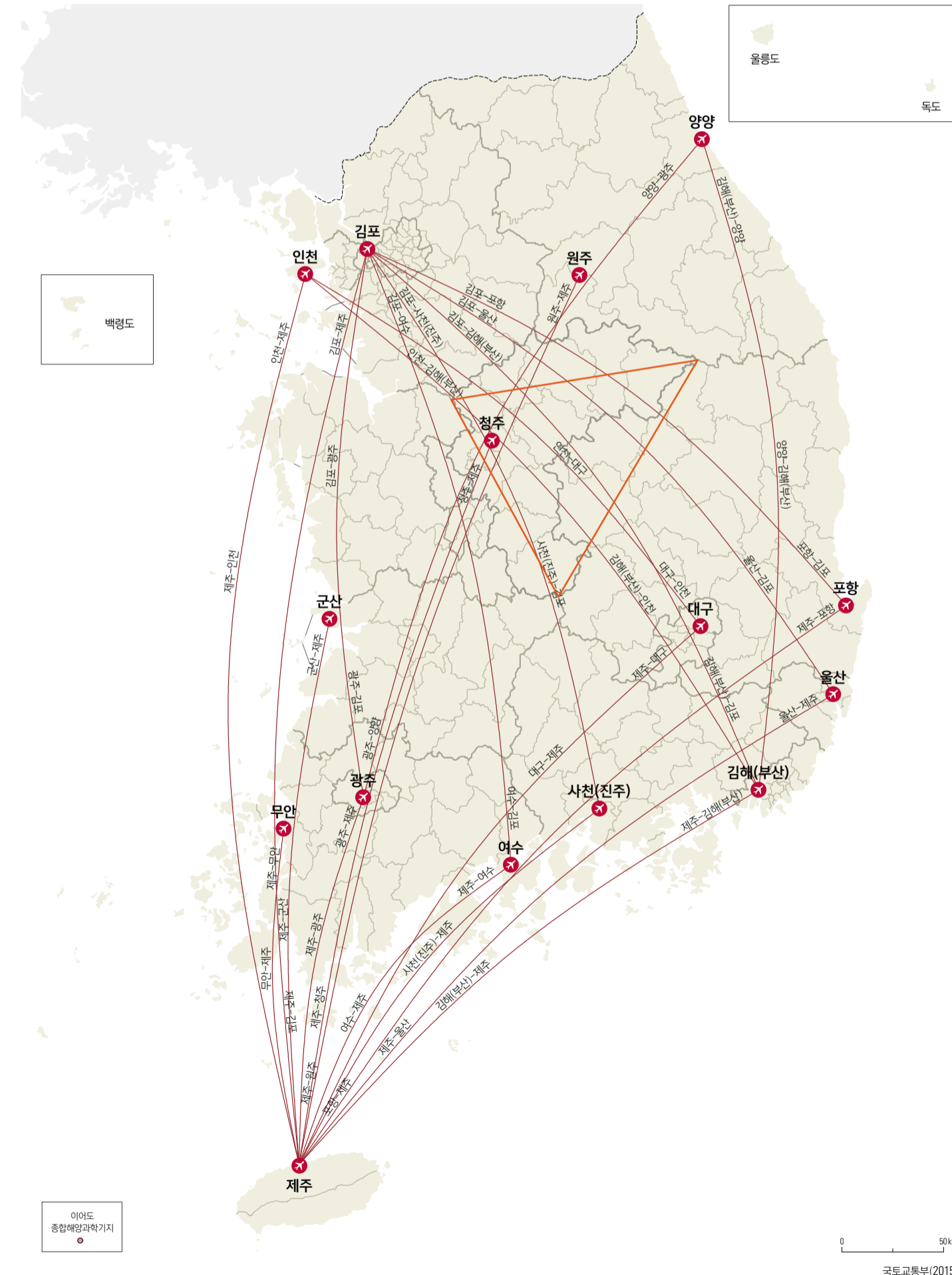
항만의 하역 능력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80년 연간 82,282천 톤이었던 하역 능력은 2013년 현재 10배 이상 증가해 연간 1,063,669천 톤이 되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가장 큰 하역 능력을 보유한 무역항은 부산항(27%)과 광양항(20%)이다. 연안 여객선의 수송량 또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현재 수송 인원은 16,063,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1990년의 8,260,000명보다 약 2배 높은 수치이다. 수송객

은 일반 시민과 도서민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05년과 비교했을 때 도서민 여객의 수는 감소한 반면 일반 시민의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목포가 3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마산(14.0%), 여수(13.3%)가 그 뒤를 잇는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정 항만은 2013년을 기준으로 총 55개소(국가 관리항 14개소, 지방 관리항 17개소, 연안항 24개소)이다. 1999년 기준 연간 여객 처리 능력과 화물 처리 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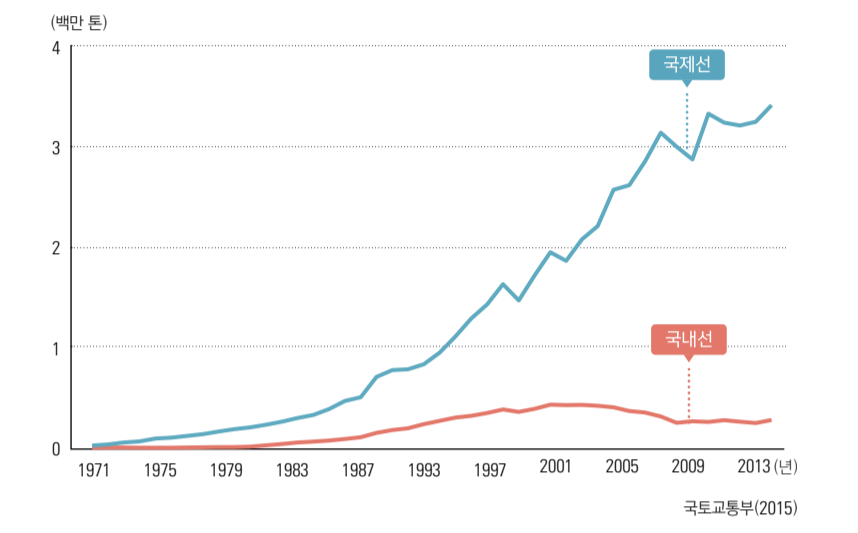
력이 각각 7,306만 명, 294.75만 톤이었던 국내 공항은 2014년 현재 15,206만 명의 여객과 679.6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990년대 이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항공 운항 실적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항공 여객 수송은 크게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객 수송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선의 경우 1995년을 전후로 완전히 정체되었다가 2010년 이후 미약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국제선의

경우 특정 기간의 번복점이 존재하나 199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77개의 항공사(국적 항공사 7개, 외국 항공사 70개)가 취항하며, 이들은 51개 국가, 152개의 도시에 국제 항공 노선을 두고 있다. 국제선의 지역별 여객 수송량은 동남아시아(33.1%), 일본(24.1%), 중국(22.6%) 순으로 많으며, 국내선의 경우 김포-제주 노선이 53.9%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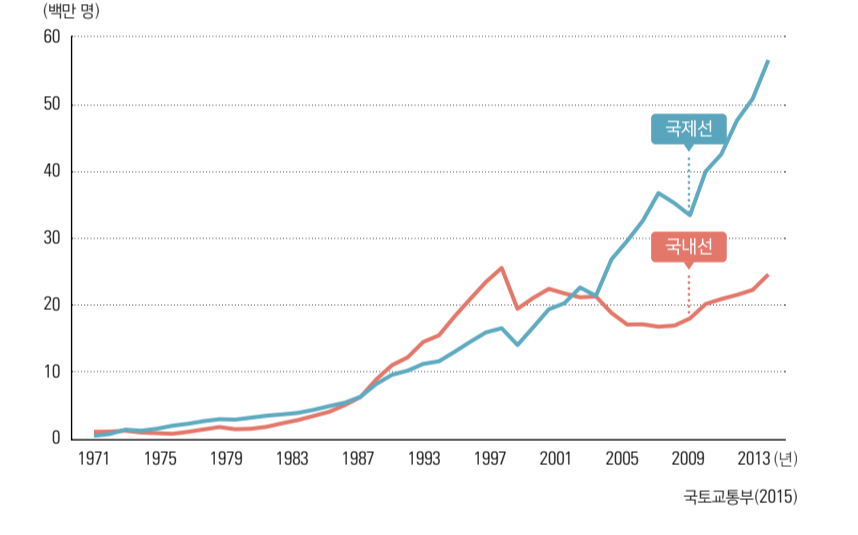
국내 항공 노선(2014년)



항공 교통-화물(2014년)



항공 교통-여객(2014년)



국내 항공 주요 노선

순위	여객(명)		화물(톤)	
	노선	수송 실적	노선	수송 실적
1	김포 ↔ 제주	13,690,824	김포 ↔ 제주	172,501
2	김해 ↔ 제주	3,040,691	김해 ↔ 제주	36,736
3	김포 ↔ 김해	2,054,879	제주 ↔ 대구	14,521
4	제주 ↔ 청주	1,214,529	김포 ↔ 김해	14,377
5	제주 ↔ 대구	1,173,274	제주 ↔ 청주	12,537
6	제주 ↔ 광주	965,305	제주 ↔ 광주	11,991
7	김포 ↔ 광주	482,935	인천 ↔ 김해	6,180
8	김포 ↔ 울산	429,986	김포 ↔ 광주	3,382
9	김포 ↔ 여수	403,354	김포 ↔ 울산	2,398
10	인천 ↔ 김해	343,399	김포 ↔ 여수	1,822
11	제주 ↔ 군산	150,878	인천 ↔ 대구	1,769
12	인천 ↔ 제주	138,061	인천 ↔ 제주	1,242
13	인천 ↔ 대구	117,760	제주 ↔ 군산	1,046
14	김포 ↔ 포항	97,512	제주 ↔ 양양	552
15	김포 ↔ 사천	81,169	제주 ↔ 원주	447
16	제주 ↔ 원주	74,862	김포 ↔ 사천	374
17	제주 ↔ 양양	59,260	김포 ↔ 포항	356
18	제주 ↔ 사천	39,700	제주 ↔ 사천	257
19	제주 ↔ 무안	31,611	제주 ↔ 여수	226
20	제주 ↔ 여수	23,795	제주 ↔ 무안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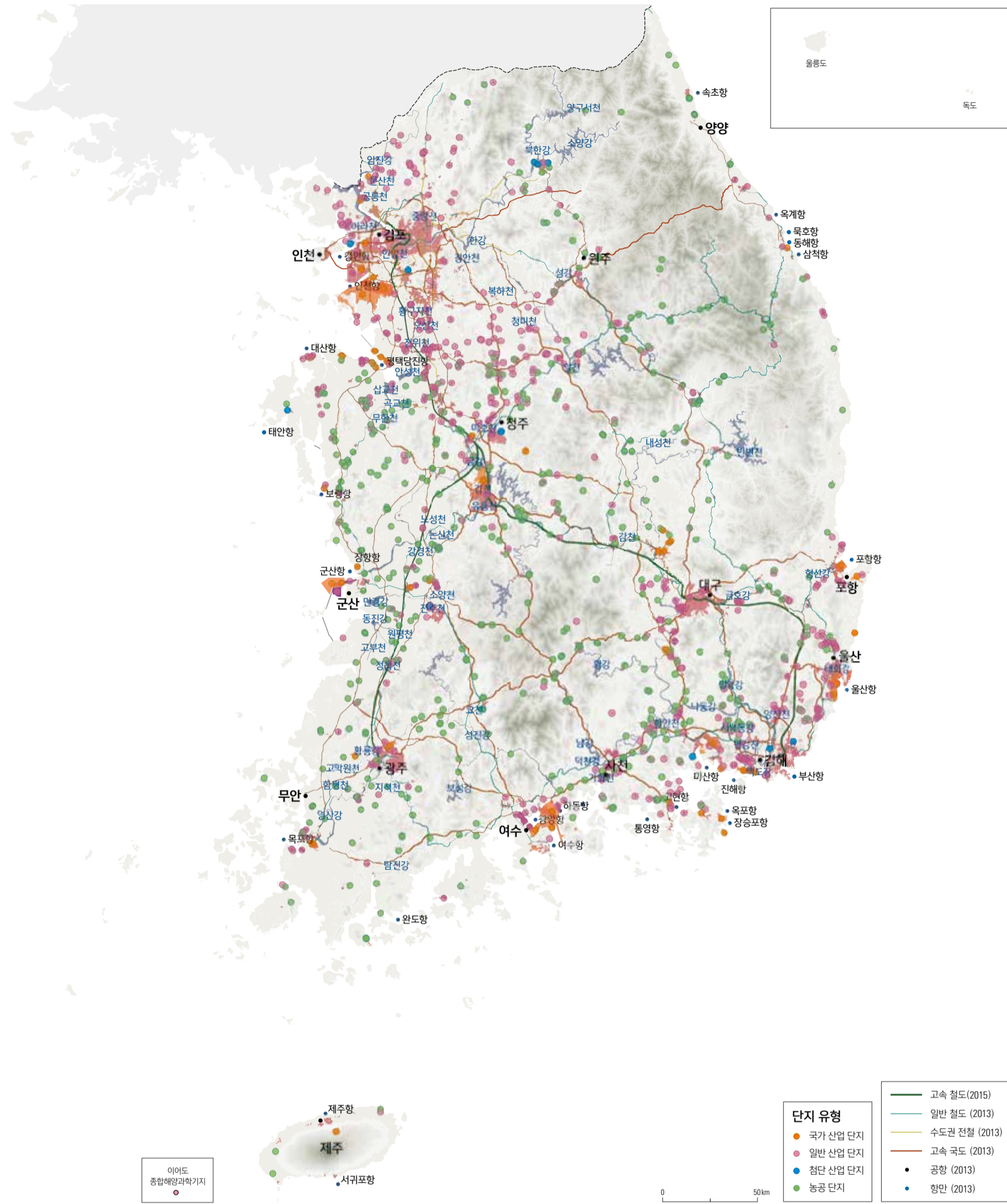
산업 단지의 분포

산업 단지는 2010년 기준 전국 제조업 생산의 62%, 수출의 79%, 고용의 42%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산업 단지란 산업 시설의 입지를 위해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개발되고 관리되는 토지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기반 시설의 공급과 국토 관리, 기업의 집적 효과 도모를 위해 1960년대부터 산업 단지를 육성해 왔다. 과거에는 산업 단지 대신 공업 단지, 공단이라는 용어가 더 친숙하게 쓰였으나, 지식 경제 기반으로서의 전환을 반영하기 위해 1990년대 이후 산업 단지로 명칭을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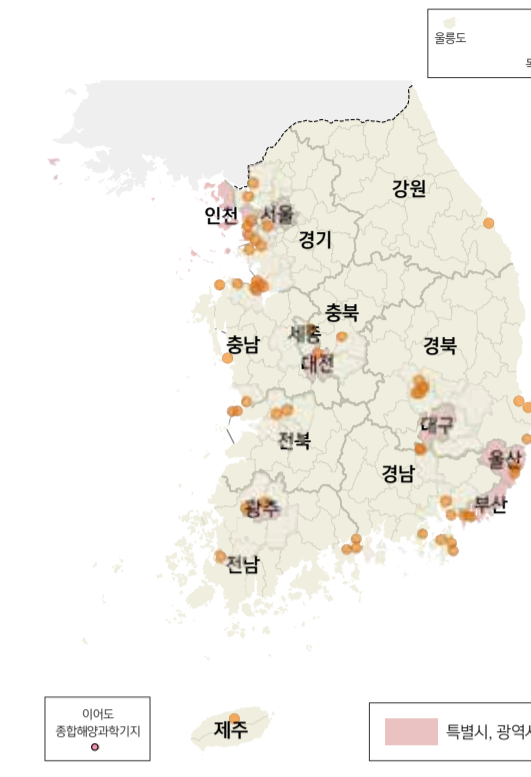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산업 단지는 크게 국가 산업 단지, 지방 산업 단지, 농공 단지로 구분되며, 지방 산업 단지는 도시 첨단 산업 단지와 일반 지방 산업 단지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상이한 개발 주제와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국가 산업 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며 지방 산업 단지는 시도지사, 농공 단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또한 국가 산업 단지는 국가 역점 산업을 육성하거나 낙후 지역 혹은 둘 이상의 사도에 걸치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정되며, 지방 산업 단지는 산업의 지방 분산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 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2013년 말 현재 전국에 조성된 산업 단지는 총 1,033개이다. 국가 산업 단지 41개, 일반 산업 단지 528개, 도시 첨단 산업 단지 11개, 농공 단지 453개이다. 산업 시설 구역은 484.7km², 분양률은 93.9%, 입주 기업 수는 총 80,547개이다. 국가 산업 단지는 수도권과 동남권, 임해 지역에 주로 입지하며, 일반 산업 단지의 경우, 경부고속국도를 따라 많은 수의 산업 단지가 입지한다. 첨단 산업 단지는 육성 단계로서, 현재 대전, 울산, 제주, 남양주, 경산, 순천, 춘천 등 권역별로 1 - 2개소가 지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농공 단지는 수도권에는 부재하며, 농업 종사 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로 입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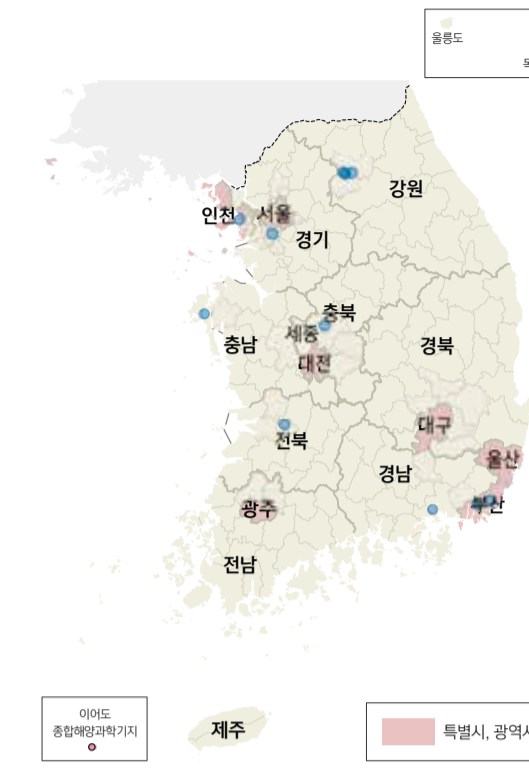
산업 단지 현황(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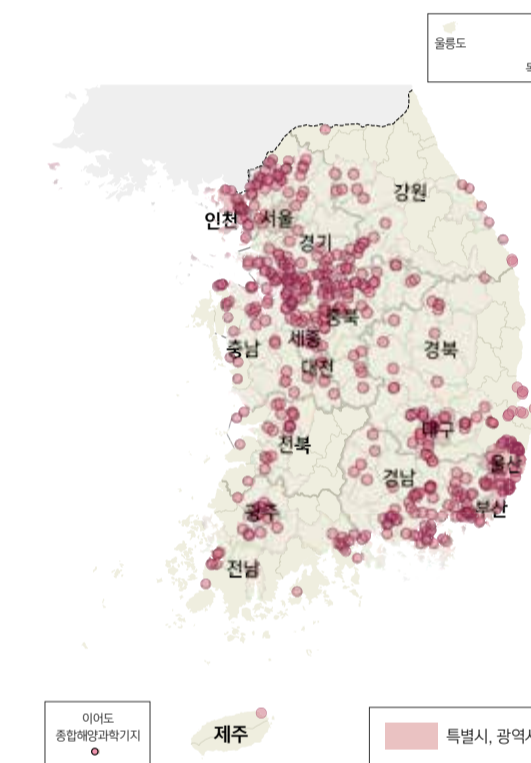
국가 산업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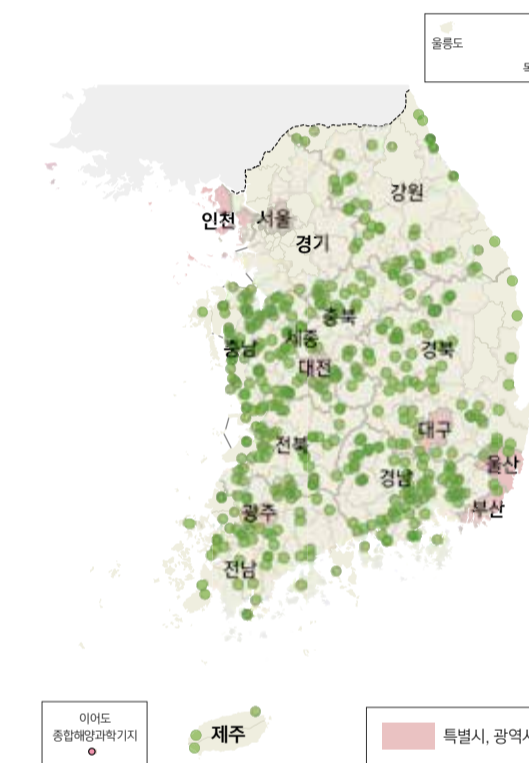
첨단 산업 단지



일반 산업 단지



농공 산업 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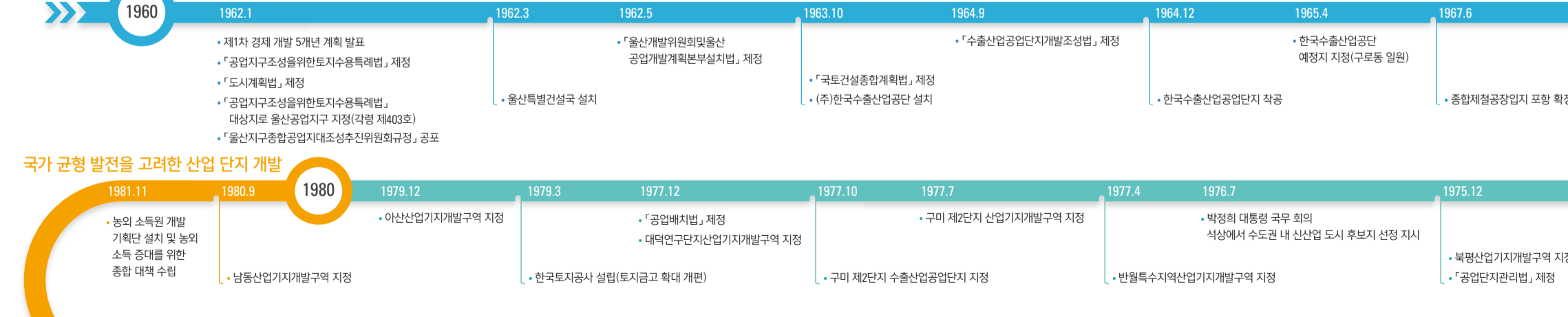


국가 산업 단지 현황(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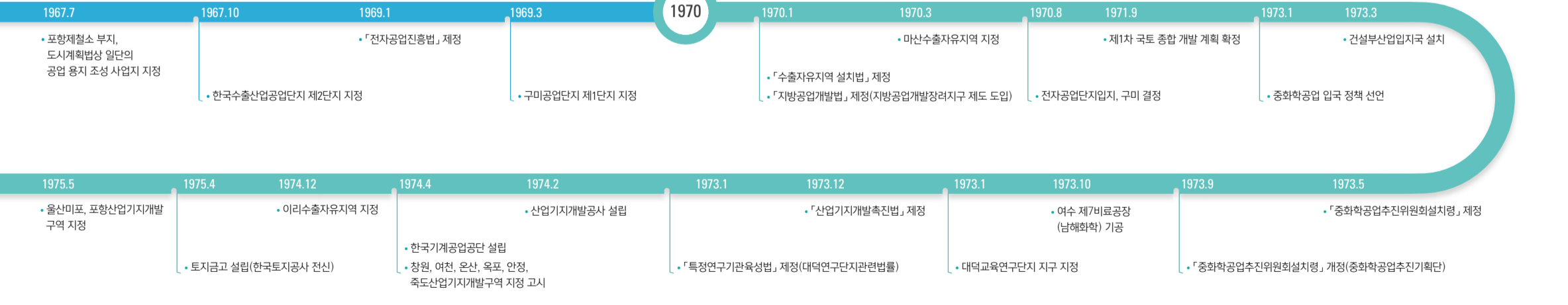
입지	단지명	주요 업종	지정 연도	지정 면적 (천m ²)	시설 구역 (천m ²)
서울, 인천	한국 수출 산업	정보 통신, 연구 개발업, 패션 디자인업 등	1964	3,708	2,908
	명지-녹산	섬유, 의복, 석유, 화학, 정밀 기계, 정보 통신	1989	10,513	4,317
대구	대구	차세대 전자-통신, 첨단 기계, 미래형 자동차	2009	8,548	5,045
인천	남동	음식료품, 섬유 의복, 나무, 종이 인쇄, 고무 화학	1980	9,574	5,913
	광주 첨단 과학	생명 공학, 정밀 화학, 정보 산업, 신소재	1990	9,992	3,385
광주	빛그린	광산업, 디지털 정보기전, 자동차 산업	2009	4,068	2,639
	대덕 연구 개발 특구	연구 개발업, 전자 전기, 정보, 신공정	2005	67,809	7,682
울산	온산	석유 정제, 비철금속, 화학 필름, 조선 기자재	1974	25,939	16,573
	울산-미포	석유 정제, 석유 화학, 자동차 및 조선 공업	1975	48,111	34,747
경기	반월 특수 지역	섬유, 화학, 조립 금속, 1차 금속, 인쇄	1977	157,636	21,153
	파주 출판	출판업, 상업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	1997	1,562	586
	파주 탄현	조립 금속, 기계 장비,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1998	80	44
강원	북평	전 제조업(도금, 염료, 주물, 염색 업종은 제외)	1975	4,030	1,194
	보은	화학 및 불꽃, 화합물 및 화학, 조립 금속	1987	4,178	1,098
충북	오송 생명 과학	보건 의료 관련 연구 기관 및 산업체	1997	4,628	1,384
	아산	전 제조업(공해 업종 제외)	1979	26,350	13,422
충남	고정	전기, 가스업	1978	6,231	2,464
	대덕 지원 비축	석유 비축 시설	1997	912	391
전북	성문	화합물 및 화학, 1차 금속, 기타 기계 및 장비	1991	12,018	4,712
	정장 생태 산업	생명 과학 기술, 정정 첨단 지식 기술, 수송 산업	2009	2,755	1,485
경남	군산2(구 군장 지구)	전 업종(섬유, 필름, 고무, 플라스틱 제외)	1989	50,458	9,953
	군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타 제조	1987	13,702	5,576
	익산 산업	섬유, 식품, 전기 전자, 화학, LED	1970	1,336	1,121
전남	식품 클러스터	식품품, 음료, 목재, 의료용 물품, 의약품	2012	2,323	1,526
	광양 산업	제철 및 관련 산업, 전기업	1982	96,405	40,854
경북	대불 산업	기계, 철강, 석유, 비금속 광물, 종이	1988	20,887	6,667
	삼일 지원 비축	원유 비축 시설	1991	4,157	3,442
	여수	석유 화학 및 연관 산업	1974	50,307	22,819
경북	구미(1)	전자 기기 부품, 섬유 기타	1969	10,223	7,908
	구미(2-4)	전자, 컴퓨터, 반도체	1977	16,603	7,762
	월성 전원	원자력 발전소	1976	3,685	1,371
	포항	철강 제조 및 연관 공업, 전기업	1975	37,868	16,058
경북	포항 블루 밸리	기계-철강-선박-자동차 부품, 에너지/IT	2009	6,119	3,606
	구미 하이테크 밸리	전기 장비,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등	2009	9,339	5,137
경남	안성	전기 가스 및 중공업, 조립 금속, 기타 운송 장비	1974	3,869	2,962
	옥포	신조선, 해상 플랜트, 수리 조선 연관 기계 공업	1974	5,780	3,318
	축동	중형 조선소, 조선 기자재	1974	4,260	2,758
	진해	중형 조선소, 조선 기자재	1982	3,306	1,664
제주	지세포 지원 비축	원유 비축 시설	1974	2,942	880
	장원	산업용 기계 공업, 전기 기기 및 수송 기계 등	1974	36,756	17,311
제주	제주 첨단 과학 기술	IT 관련, BT 관련, 연구 개발업	2004	1,099	375

한국산업단지공단(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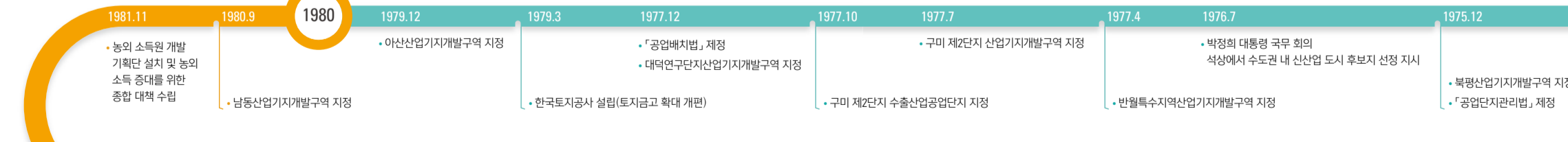
수출 주도형 경공업 육성을 위한 공업 단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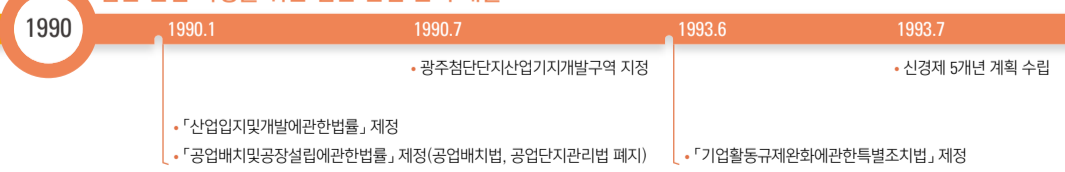
중화학 공업 단지 조성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한 산업 단지 개발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 산업 단지 개발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전문 산업 단지 조성

